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고 선 강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손자녀 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전 은 미

손자녀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 선 강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전 은 미

인 준 서

전은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현재 맞벌이 부부를 대신하여 만 0~6세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총 134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조부모 특성, 손자녀 특성,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차이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효능감은 그들의 삶의 만족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조부모의 건강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이 밝혀져 있다. 이러한 요인들보다 양육효능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 조모 뿐 아니라 조부모에게도 양육효능감은 삶의 만족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밝혀졌다. 부수적으로 양육효능감보다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양육하는 손자녀 특성도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었다. 손자녀 특성 중 손자녀의 성별과 손자녀의 질병여부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손자녀 양육활동 어려움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며, 양육효능감은 조부모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조부모의 양육활동 어려움의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떨어지고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조부모의 삶의 만족이 높았다. 또한 양육활동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양육활동 어려움이 양육효능감을 통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 구체적으로 양육활동 어려움 중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가 양육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가장 관계성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유지’였으며, ‘가

사'와는 가장 낮은 관계성을 보였다.

셋째, 손자녀 양육에 있어 조부모 특성, 손자녀 특성, 양육환경 특성에 따라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양육효능감을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조부모 특성에 따라 50대일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 일 때,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손자녀 특성에 따라 여자 일 때, 질병이 없는 경우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양육환경 특성에 따라 손자녀 돌봄에 대한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양육활동 어려움을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조부모 특성에 따라 남성의 경우, 60대 이상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종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자녀 수가 4-5명 이상인 경우, 양육 손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활동 어려움을 보였다. 손자녀 특성에 따라서는 남자인 경우, 질병이 있는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경우 양육활동 어려움을 보였고, 양육환경 특성에 따라 손자녀 돌봄에 대한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어려움이 높았다.

삶의 만족을 조부모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50대일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총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삶의 만족이 높았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5
1. 손자녀양육의 관련 이론	5
2. 선행연구고찰	5
1) 손자녀 양육효능감 관련 연구 고찰	5
(1) 양육효능감	5
(2)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7
① 조부모 특성과 양육효능감	7
② 손자녀 특성과 양육효능감	10
③ 양육환경 특성과 양육효능감	11
(3) 양육효능감과 삶의 만족	12
2) 손자녀 양육활동 어려움 관련 연구 고찰	13
(1) 양육활동 어려움	13
(2) 양육활동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5
(3) 양육활동 어려움과 삶의 만족	15
3) 조부모의 삶의 만족 관련 연구 고찰	16
(1) 조부모의 삶의 만족	16
(2)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7
III. 연구방법	23

1. 연구문제	23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23
1) 양육효능감	23
2) 양육활동 어려움	24
3) 삶의 만족	28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9
1) 연구대상	29
2) 자료수집 방법	29
4. 분석방법	29
5. 표본의 일반적 특성	30
1) 조부모 특성	30
2) 손자녀 특성	32
3) 양육환경 특성	34
4)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관련 정책 지원 요구도	36
IV. 연구결과	38
1. 조부모 특성, 손자녀 특성,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	38
1) 조부모 특성, 손자녀 특성,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	38
2) 조부모 특성, 손자녀 특성,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양육활동 어려움	44
3)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	53
2.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57
3.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관계	59
1)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상관관계	59
2)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관계: 경로분석	61

(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61
(2) 연구모형의 경로추정치	63
① 연구모형1의 경로추정치	63
② 연구모형2의 경로추정치	64
(3) 직 · 간접효과 및 총 효과 분석	66
① 연구모형1의 직 · 간접효과 및 총 효과 분석	66
② 연구모형2의 직 · 간접효과 및 총 효과 분석	66
V. 결론	68
1. 결론	68
2. 제언	72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양육효능감	24
<표 2> 양육활동 어려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27
<표 3> 삶의 만족	28
<표 4> 조부모 특성	31
<표 5> 손자녀 특성	33
<표 6> 양육환경 특성	35
<표 7> 손자녀 양육관련 정책 지원 요구도	37
<표 8> 조부모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 차이	39
<표 9> 손자녀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 차이	40
<표 10>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 차이	41
<표 11>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	45
<표 12> 조부모 특성에 따른 양육활동 어려움 차이	47
<표 13> 손자녀 특성에 따른 양육활동 어려움 차이	50
<표 14>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양육활동 어려움 차이	51
<표 15> 조부모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 차이	54
<표 16>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59
<표 17> 조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활동 어려움의 관계	60
<표 18> 조부모의 양육활동 어려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	60
<표 19>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62
<표 20> 연구모형1의 경로추정치	63
<표 21> 연구모형2의 경로추정치	65
<표 22> 연구모형1의 직 · 간접효과 및 총 효과	66
<표 23> 연구모형2의 직 · 간접효과 및 총 효과	66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1의 경로추정치	64
<그림 2> 연구모형2의 경로추정치	65

I. 서론

평균수명의 연장과 유년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총인구 중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대하는 현상을 인구의 고령화라고 한다.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는 「장래인구추계」(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 기점으로 총 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돌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경우 2026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통계청, 2012). 그리고 2030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4.3%인 1,181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OECD 국가 중 노인인구 비율 4위가 된다(통계청, 2010; 김종남, 2014).

발달된 의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 개선된 영양, 자녀의 수의 감소, 교육기간의 연장 등으로 가족생활주기에 도 변화가 생겼다. 가족생활주기는 개인의 생활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주기와 일치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경우 세월이 흐름에 따라 비슷한 발달과정을 거치게 된다. 젊은 세대의 결혼기피 현상과 늦은 초혼 경향으로 자녀들이 원가정을 떠나기 시작하는 단계가 늦어지고 있고, 자녀의 늦은 혼인은 빈둥지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된 것이다.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으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 잘 늙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열망을 넘어서 노년의 삶의 질로 옮겨지고 있다(정순돌·이현희, 2012).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우리나라 총 인구에 대한 비중이 14.6%(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라는 점과 이들이 노년기를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베이비붐 세대까지를

포함한 넓은 연령층이 특징인 노년기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또한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 중 하나는 맞벌이 가정의 꾸준한 증가이다.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등으로 1995년 맞벌이 가구가 전체의 31.5%였던 것에 비해 최근 전체 가구의 42.9%(통계청, 2013)에 이르러 오늘날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맞벌이가 되었다(김수정, 2015).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로 인하여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비공식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전혜정 외, 2013). 맞벌이 가정에서의 비공식 보육 서비스 중에서도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201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 507만 가구 중 절반 이상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의 육아를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한국경제, 2014. 4. 29), 맞벌이 가정의 육아지원서비스를 다룬 연구에서도 아이돌보미, 가정보육사 또는 베이비시터 이용률(각각 5.0%, 5.4%)보다 조부모, 친인척 이용률(63.6%)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유해미 외, 2014, 육아정책연구소, 2015 재인용).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자녀 양육 경험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고(Goodfellow & Laverty, 2003; 배지희·노상경·권경숙, 2008), 심리적 부담감도 갖게 되며(전연우·김윤숙·조희숙, 2012), 사교나 여가활동 시간의 부족으로 사회적 격리감까지 느끼게 되는 등(권인수, 2000; 오진아, 2006)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최근 손자녀 양육을 통해 가족 간 네트워크가 활발해지거나 유지되면서 노후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며(김은정, 2012; 최영·차승연, 2013), 삶의 만족도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경험(전혜정 외, 2013)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요즘 들어 젊고, 건강한 조부모들이 많아지고,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

빠)’, ‘황혼육아’ 등의 신조어 등장과 함께 부모 이상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손자녀 양육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부모가 현재 하고 있는 손자녀 양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연구해야 하는 것일까? 양육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모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내게 되는 모의 자녀양육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양육의 인지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양육과정에서 모가 느끼는 감정과 신념이 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다양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으로,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모의 인지적인 측면 중 하나인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이다(안지영, 2001; 조영숙·이양희, 2007). 선행 연구들을 보면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Sanders & Woolley, 2005; 김미숙 · 문혁준, 2005; 이병례·한세영, 2007)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넓게 확대하여 양육효능감과 모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등을 포함한 양육의 질적인 변인과 양육 행동간의 관련성을 탐색한 결과 양육효능감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조영숙·이양희, 2007). 이를 통해 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에 양육효능감이 중요하게 작용된다면 맞벌이 부부를 대신하여 부모 못지않게 부모의 양육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조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는지와 조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활동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2011), 육아정책연구소(2015) 등 연구소 주관으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의 실태 위주만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손자녀 양육의 인지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는 그 수가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 학위논문 위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같은 대상에게 두 가지의 측면을 심도 있게 살펴 이해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따른 삶의 만족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손자녀 양육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손자녀 양육을 크게 두 가지로 인지적인 측면은 양육효능감으로, 행동적인 측면은 구체적인 양육활동으로 나뉘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손자녀 양육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손자녀 양육의 관련 이론

Erikson(1963)의 심리사회 발달이론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들의 발달과업은 생성감과 사회통합감을 형성해야 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장년기 기준을 65세까지로 보는 학자들(Zastrow & Kirst-Ashman, 2007) 기준으로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2016년 기준으로 만 53세에서부터 61세로 생성감(generativity)이 주된 발달과업이 된다. 이전까지의 단계가 자아정립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면 이 단계는 정립된 자아를 통해 이웃과 세계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실천하는 단계이다. 생산활동과 방법에 관심이 크기도 하지만 만들어 낸 작품을 아끼고 돌보는 관심으로 돌봄(care)을 품게 된다(김미영, 2015). 의무감에만 얽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보고 아끼는 덕이다. 생성감은 성숙한 성인이 다음세대를 구축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관련이 있는 생산성(productivity) 뿐만 아니라 창조성(creativity)을 포함하는 그 이상의 개념이다. 다음세대를 낳고 키우며 보살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욕구라 정의할 수 있다(Erikson, 1963; 조운주, 2012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손자녀의 양육은 이러한 생성감이란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일에 해당하며, 생산성을 얻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통한 발달과업의 달성은 그들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성공적인 심리적 자아통합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선행연구고찰

1) 손자녀 양육효능감 관련 연구 고찰

(1)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느끼는 양육의 자신감으로 정의되는데 학자들이 정의한 양육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육효능감이란,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부모가 느끼는 능숙함과 자신감의 수준을 의미한다(Johnston & Mash, 1989; 황운하, 2015 재인용). Bandura(1982)는 자기 효능감을 다가올 상황에서의 성공적인 대처 행동에 대한 기대로 정의하였는데, Johnston과 Mash는 Bandura의 자기 효능감 개념을 양육의 맥락에서 연구하여 양육효능감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Bandura(2001)는 특정 영역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언급에서 그것은 일반적 자기 효능감보다 행동을 더 잘 예측한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세부적 자기 효능감 중 하나가 바로 양육효능감인 것이다(박소영, 2006). 즉 개인이 경험할 미래의 상황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측을 더 잘 할 수 있는데,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Schel과 Rieckman(1998)은 양육효능감이란 부모의 과업을 완수하고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지각이라고 하였고, Dorsey·Klein·Forehand와 Family Health Project Group(1999)는 양육효능감이란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였다. 또 Teti와 Gelfand(1991)는 양육효능감이란 효율적으로 양육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믿음이라고 하였고, Dumka·Storezing·Jackson과 Roosa(1996)는 부모가 양육역할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으로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지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육효능감을 정의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결과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행동 수행, 양육 과업의 효율적 수행, 자녀 행동관리와 문제해결 능력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육효능감의 정의는 대부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에 의한 것이다. 본 연구는 조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연구하는데 우리나라의 연구 중 안지영(2001)의 연구에서 조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안지영, 2001), 손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도 자신이 잘 관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조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양육 태도 및 행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황윤하, 2015). 부모의 양육효능감 수준에 따라 자녀의 발달에서 양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바라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Luster & Kain, 1987). 즉 높은 양육효능감을 지니고 있는 부모는 낮은 양육효능감을 지니고 있는 부모에 비하여 부모의 양육 행동이나 신념, 또는 양육 참여가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강압적이거나 무기력한 양육행동 뿐 아니라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Gondoli & Silverberg, 1997). 이렇듯 양육효능감은 양육자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져왔다(김현미·도현심, 2004; 김미숙·문혁준, 2005, Sanders & Woolley, 2005)

① 조부모의 특성과 양육효능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양육효능감은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고, 이러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것들이고,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효능감을 유추하도록 하겠다.

부모의 연령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권정운 외(2013)는 만 2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발달과 관련된 양육효능감이 높았음을 밝혔다. 또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연구에서도(양은호 · 최혜순, 2011) 어머니의 연령을 3집단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은 경우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은 어머니들은 그동안의 양육경험이나 사회적인 경험을 토대로 자녀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독립심을 키워주는 등(이민자, 2007)의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이 더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양은호 · 최혜순, 2011). 그러나 이에 반해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효능감이 유의하지 않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이경하, 2009; 이수진, 2011; 서희 2012).

교육수준과 양육효능감에 있어서는 우선 양육하고 있는 대상이 어머니인 경우를 보면, 양은호 · 최혜순(2011)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대학원 이상 졸업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대학 졸업, 전문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서희(2012)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

상으로 효능감을 살펴본 연구(황선실 · 황희숙, 2014)에서는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력과 양육효능감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이미원, 2015), 유아기 손자녀의 조모의 학력이 무학인 경우보다 중학교 졸업 이상의 조모가 손자녀에 대한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적인 참여를 많이 한다는 연구(한경희, 1987)가 있다.

조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오진아(2007)의 연구에서는 조모의 교육정도와 양육효능감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오진아(2007)는 종교와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에는 차이가 없음도 밝혔다. 권영희(2010) 연구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있는 조모가 배우자가 없는 조모보다 양육효능감이 더 높았다.

조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오진아, 2007; 권영희, 2010; 이미원, 2015)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육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희(2010)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조모가 건강상태가 나쁜 조모보다 양육효능감이 더 높았다. 오진아(2007)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바 조모가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영유아를 돌볼 수 있다는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건강상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건강문제가 적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직업활동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7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김지현, 2011)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안지영, 2001; 송미혜, 2006). 만 2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권정윤 외,

2013)에서도 직업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이나 자녀발달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안지영(2000)은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취업한 어머니들에 비해 양육 효능감이 더 낮은 편이며, 양육 스트레스는 더 높게 지각하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와 반대로 허혜경·김민정(2012)은 어머니 관련변인별 양육효능감의 차이에서 전반적으로 전업주부의 양육효능감이 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

가구소득과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양은호·최혜숙(2011)은 소득수준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전인옥·이경옥, 1999)와 가족의 수입이 양육효능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최형성(200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전향미(2009)의 연구에서도 월수입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자녀 수에 따라서는 만2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분석한 권정윤 외(2013)는 다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일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의 수와 양육효능감에 관해서는 현재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경우 돌보는 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보다 1명의 손자녀를 돌볼 때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권영희, 2010).

② 손자녀 특성과 양육효능감

자녀의 성별도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다. 만3세, 4세, 5세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정서조절행동과 양육효능감을 알아본 연구(최은숙 · 박영희, 2015)에서 긍정적 양육효능감은 여아를 둔 어머니가 남아를 둔 어머니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효능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녀의 간접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는 연구들이

있다(우희정 · 이숙, 1994; 박소영, 2006). 이와 달리 서희(2012)는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양육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다.

손자녀의 연령이 만5세~만6세 보다 만1세~만2세인 경우 또 자녀가 25개월~30개월인 영아보다는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어머니 즉, 어릴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권영희, 2010; 홍정아, 2010)가 있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보다 더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영주·송연숙; 2007).

오진아(2007)는 영유아 건강상태는 조모의 양육효능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한다. 먼저 영유아 건강상태가 매우 좋을 경우가 양육효능감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건강상태가 좋은 편일 경우가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보다는 오히려 나쁜 편이라고 생각될 때가 양육효능감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아동이 질환을 가진 경우로 의료진과의 협력체계가 조성되어 있거나 더욱 적극적으로 돌보기를 하는 경우로 생각되지만, 특별한 질환이나 진단명이 없어 그저 영유아의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그 막연한 불확실성 때문에 영유아를 돌봄에 있어 양육효능감을 가장 저하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③ 양육환경 특성과 양육효능감

양육동기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로 김문정(2009)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동기가 높은 조모일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밝혔고, 권영희(2010)는 돌보게 된 동기에서 조모가 자발적으로 손자녀를 돌볼 때 가장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졌다. 양육효능감에서 돌보게 된 동기가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주었으며 조모가 원하여 손자녀를 돌보게 된 경우가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자녀의 건강이나 부탁에 의해서 손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오진아(2007)도 조모가 원해서 영유아를 돌보기 시작한 경우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영유아 부모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의 순서로 양육효능감의 정도를 나타냈다.

돌봄으로 인한 용돈 유무에서는 용돈을 안 받는 경우가 용돈을 받는 경우보다 더 양육효능감이 높았다(권영희, 2010). 그리고 영유아의 부모로부터 수고비를 수혜받는 정도는 양육효능감의 정도와 차이가 없었다(오진아, 2007). 손자녀를 돌본 기간에 있어 3년 미만과 3년 이상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돌본 기간이 짧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다(권영희, 2010).

(3) 양육효능감과 삶의 만족

Luster와 Kain(1987)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어머니와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도 영향을 끼침을 보고하고 있다. 김지현(2012)도 7세 이하의 영유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관해 연구한 결과 양육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즉, 어머니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각이 곧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양육효능감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렇게 양육효능감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연구와는 달리 그 영향을 작게 보고한 연구도 있다. 취업모와 비 취업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역할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지현(2011)은 두 집단 모두 양육효능감보다는 부모역할 만족도가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보다는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취업모인 자녀를 대신해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김문정, 2009) 손자녀 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 구조모형을 살펴본 결과 양육효능감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밝혀졌다.

2) 손자녀 양육활동 어려움 관련 연구 고찰

(1) 양육활동 어려움

조부모는 손자녀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한다(박화윤·이영숙, 1999). 아이 돌보기, 이야기 나누며 놀기, 용돈 주기, 함께 TV보기, 조부모의 어린 시절과 가족에 관한 지나간 일을 들려주기, 조언해주기, 손자녀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예배 참석하기, 훈련하기, 산책이나 여행가기, 기본적인 기능이나 게임 가르치기 등이 가장 흔히 행해지고 있는 활동이다(Cherlin & Furstenberg, 1986; Robertson, 1977; 박화윤·이영숙, 1997 재인용). 하지만 손자녀와 함께하는 조부모의 활동은 조부모마다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유형을 분류한 Neugarten과 Weinstein(1964)은 조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역할과는 별도로 조부모의 역할만을 하는 공식적 유형, 손자녀들과 놀아주면서 서로 만족을 찾는 재미추구 유형, 손자녀를 돌보는 것을 의무로 여기는 대리부모 유형, 자신을 세대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술과 지혜의 원천임을 내세우는 가부장 유형, 공식적인 가족모임 외에는 손자녀와 관계를 자주 가지지 않는 원거리 유형 등으로 조부모 유형을 분류하였다. 박화윤·이영숙(1999)은 유아기 손자녀의 조모를 대상으로 하여 조모 역할 분류를 하여 양육자 역할, 교육자 역할, 지원자 역할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어린 손자녀의 조모는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그러한 역할의 대부분은 양육자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1)은 영아가정을 중심으로 맞벌이 가정내 조부모의 양육현황 및 지원방안을 연구한 보고서에서 손자녀 양육활동을 책 읽어주기, 장난감 놀아주기, TV보기, 밖에 나가 놀아주기, 음식 만들어 먹이기, 청소·빨래하기의 6개 항목으로 살펴보았다.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조부모의 경우 과반수가 책 읽어주기가 어렵다고 하였고, 장난감을 갖고 놀아주는 것은 의사소통이 조금 더 원활해지는 시기에 보다 수월하게 느낀다고 한다. 육아정책연구소(2015)는 1가구 내의 조부모 1인과 부모 1인을 동시에 표집하는 대응표집을 실시하여 500가구를 대상으로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에서 양육활동을 기저귀 갈기, 우유/식사, 이유식 등 간식, 목욕시키기, 놀이터에 나가 놀아주기, 실내에서 놀아주기, 동화책 읽어주기, 동요 불러주기, TV시청 같이 하기, 손자녀와 함께 문화센터가기, 집안 청소하기, 빨래하기, 성인(자녀)식사준비 13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수행하는 전체 양육활동 중 어려움을 느끼는 활동은 성인(자녀)식사준비, 빨래하기, 집안 청소하기, 손자녀와 함께 문화센터가기, 놀이터에 나가 놀아주기 순이었으며, 가장 수월하게 느끼는 활동은 TV시청 같이하기였다.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활동은 놀이터에 나가 같이 놀아주기였고, 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활동은 기저귀 갈기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부모의 양육활동 어려움이란,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도남희 외, 2013)에 사용된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을 수정 보완한 항목에 바탕을 둔 조부모의 행위으로써,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한 어려움으로 정의하겠다. 이는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 총 4개의 대분류로 구성되어있다.

(2) 양육활동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조부모의 성에 따라 그들의 역할이 달라지는데, 실제로 조부나 조모가 손자녀에게 하는 활동은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이 반영된다(이영숙 · 박화윤, 2000). 조부는 주로 수단적인 활동을, 조모는 주로 표현적인 활동을 한다. 조모의 역할에는 정서적이며 상징적인 중요성이 강조되고 수단적인 것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반면, 조부는 직접적인 돌보기 능력은 부족(Fischer, 1983)하나 손자녀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Tinsley & Parke, 1984) 수단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부모의 성에 따라 차이가 적거나 또는 차이가 전혀 없다는 연구도 있다(Cherlin & Furstenberg, 1986; Thomas, 1989; 이영숙 · 박화윤, 2000, 재인용)

손자녀와의 관계가 양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모와 딸 간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외손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영향을 준다(이영숙 · 박화윤, 2000). 흔히 젊은 모는 자기의 모 즉 외조모에게 자녀를 돌봐주기를 의뢰하는데 이런 경우 성인 아들보다는 성인 딸을 도와주려는 경향이 높으므로 자연스럽게 외손녀와의 활동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Eisenberg, 1988). 그러나 이 결과는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손자녀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박화윤 · 이영숙, 1999; Roberto & Stroes, 1992)도 있다.

손자녀와 조부모의 동거여부가 조부모-손자녀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이 지적되고 있다(이영숙 · 박화윤, 2000). 즉 손자녀와 동거하는 조모는 동거하지 않는 조모의 경우보다 손자녀를 돌보아 주는 역할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역할 수행을 더 많이 한다(서동인, 1989; 박화윤 · 이영숙, 1999)

(3) 양육활동 어려움과 삶의 만족

양육 활동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행위별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고, 양육 활동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수행 항목들의 하위영역과 유사한 구성으로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민현숙과 정영숙(1997)은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생활만족 수준과 역할수행도를 연구하였다. 역할수행도에는 여가생활 12문항, 생활지도 8문항, 학습지도 6문항, 가사참여 6문항을 포함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참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아버지의 역할수행도에 있어서는 생활지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은 여가활동, 학습지도, 가사참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활만족 수준이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있어 여가활동, 생활지도, 학습지도면에서의 역할수행도가 높다는 것이다.

3) 조부모의 삶의 만족 관련 연구 고찰

(1) 조부모의 삶의 만족

1960년대에는 인간의 불행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Diener, 1984), 1970년대 이후 객관적 지표에 대한 대안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최근까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오고 있다. 삶의 만족감 개념이 일반화 된 것은 1961년 Neugarten과 그의 동료들이 활동이론(activity theory)와 분리이론(disengagement)을 검증하기 위해 삶의 만족감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박서영, 2007). 그 이후 삶의 만족감이라는 개념은 사기(morale), 행복감, 삶의 질, 적응, 주관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므로 삶의 만족감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Mannell & Dupuis, 1996). Medley(1976)은 삶의 만족감

을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대가 형성되며 이런 기대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삶의 만족이란 개인의 기대와 그 충족도 여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Diener(1984)는 삶의 만족은 인지적 평가와 감정적 평가를 포괄하며 구체적으로 생활 범위 및 전반적인 생활에서 인지적 및 감정적 반응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삶의 만족은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과거나 현재, 미래까지 포함하여 생활 역사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주관적이며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이며, 삶에 대한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겠다(김지현, 2012).

(2)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조부모들의 연령이 중노년기에 해당하므로 중노년의 삶의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일관되지 않고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181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노인에 비해 높았으며(박기남, 2004), 강상경(2012)이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베이비붐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의 삶의 만족도 비교연구에서 성별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베이비붐 이후세대

와 베이비붐세대에서는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베이비붐 이전세대에서는 성별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현진(2015)연구에서는 베이비붐세대는 여성일 때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의 성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다(김태현 외, 1999; 권중돈 · 조주연, 2000)

정명숙(2005)은 청소년부터 대학생, 성인 및 노인까지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교하여 노인이 가장 높았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한 것이다. 강상경(2012)은 연령과 얽힌 여러 요소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과 삶의 만족도 수준만을 본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베이비붐 이후 세대나 베이비붐 이전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조부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는 떨어지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오진아, 2006; 최명희, 2012, 김미령, 2014). 오진아(2006)은 평균 연령이 57.4세인 조모를 대상으로 삶의 질 점수를 살펴 50대가 가장 높고 60대가 삶의 질이 가장 낮음을 나타냈다. 최명희(2012)도 연령대를 나눠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50대가 60대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김미령(2014)는 대상을 넓혀 조부모를 대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떨어짐을 보여주었다. 또 전해정 외(2013)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조부모의 경우에는 손자녀 양육자로서의 전이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기 조부모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연구(강상경, 2012; 이현진, 2015)가 있고, 교육수준에 따라 중년기 부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진미정 ·

육선화, 1994)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모의 경우는 고등졸 이상 집단이 중등졸 집단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최명희, 2012).

종교와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전성표(2011)는 전국의 불교, 개신교, 천주교 신자 및 종교가 없는 성인 1,19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종교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개신교인과 천주교인들은 불교신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일상생활에 대해 높은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도 종교가 다른 인구학적 변인들과 비교해 볼 때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작은 편이라고 한다.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 중년기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종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이옥숙, 2008),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박희봉 · 이희창, 2005). 반면 종교의 유무에 따른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도 있다(최종명, 2001).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을 살펴본 연구(오진아, 2006)에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사람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나 삶의 질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다수의 연구에서 배우자 유무는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박희봉 · 이희창, 2005), 20대 이상의 성인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알아본 연구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에 비하여 경제적 ·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외로움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우재영, 2013).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박기남(2004)도 같은 결과를 보이면서, 남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 유무와 만족도와의 관계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지만, 여성 노인의 경우는 배우자 유무와 만족도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추

가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는 은퇴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고, 결혼 등으로 독립하는 자녀와의 교류 또한 감소함에 있어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의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이현진, 2015). 그러나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최명희, 2012).

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며, 주관적 건강인식 및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기남, 2004; 조계화 · 김영경, 2008; 김미령, 2012).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 장애와 질병의 경험과 같은 신체 기능의 취약성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현정 외, 2009). 강상경(2012)은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베이비붐 이후세대에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이전세대에서는 유의함을 밝혔다. 윤운도(2013)의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1차, 2차 베이비붐의 생활만족도를 비교연구 한 결과 두 세대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낮으면 가정생활과 은퇴 후 새로운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반적인 생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박금화 · 최영희 · 남철현, 2008).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우선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직업 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소득의 증가가 삶의 질을 두드러지게 증가시킨다는 Rogers와 Deboer(200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면서 취업모는 비취업모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났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김

지현, 2011). 이는 어머니의 직업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울수록 직업역할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져 삶의 만족도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다(김지현, 201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연령대와 유사한 연령대의 성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이 있는 중년기 여성 집단이 직업이 없는 여성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이옥숙, 2008), 베이비붐 세대나 예비노인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임금이나 취업 안정성이 두세대 모두에게 중요하게 나타났다(정순돌 · 이현희, 2012). 마지막으로 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취업여부가 남녀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보았는데, 남성들의 경우 취업해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여성 노인들은 오히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박기남, 2004).

가구원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전 연령대에 걸쳐서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박희봉 · 이희창, 2005; 황명진, 2010; 강상경, 2012). 이현진(2015)의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베이비붐 이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에서 소득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베이비붐 이전세대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강상경, 2012).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모의 경우도 역시 전반적으로 가정의 월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월소득 200만원 이상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최명희, 2012).

자녀의 수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김지현(2011)은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에 비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각각의 자녀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지현, 2011).

그리고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가 1명인 집단이 2명 이상인 집단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최명희, 2012). 이와 달리 돌보는 손자녀의 수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김미령, 2014),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돌봄상황 자체(돌봄연수, 돌봄시간, 돌봄장소, 돌보는 손자녀 수)는 돌봄노동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

이상의 관련이론 고찰과 관련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 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관계와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조부모의 양육 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 조부모 특성, 손자녀 특성,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양육효능감과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개 항목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신숙재(1997)가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신숙재(1997)는 PSOC를 요인분석하여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9문항),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4문항)의 2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그 가운데 9개 항목의 ‘부모 효능감’을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하부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수의 연구(김미숙·문혁준, 2005; 이병례·한세영, 2007; 김문정, 2008; 김지현, 2011; 김민정 외, 2013)에서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되어졌다. 특히 김문정(2008) 연구에서 동일 척도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 대상으로 사용하여 검증된 바 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그저 그렇다’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하였다. 이 중 5번, 6번 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점수는 9점에서 45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이 0.93으

로 매우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양육효능감

	문 항	M	SD
1	나는 손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3.51	.971
2	나는 손자녀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3.57	.853
3	나는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좋은 할머니(할아버지)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3.52	.915
4	나는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3.56	.880
5	나는 손자녀가 나를 좋은 할머니(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3.69	1.133
6	나는 할머니(할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3.83	1.031
7	나는 손자녀가 잘못했을 때, 손자녀 자신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가르친다.	3.61	.909
8	나는 할머니(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3.78	.819
9	나는 좋은 할머니(할아버지)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3.52	.948
$\alpha = 0.93$			

2) 양육활동 어려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활동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도남희 외, 2013)에 사용된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남희 외(2013)는 김은화(2012)의 분류 기준과 진미정·이윤주(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행동분류 기준을 1차적으로 작성한 뒤, 통계청의 ‘2009 생활시간 조사’ 분류기준과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통해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은 총 7개의 대분류, 34개의 중분류, 77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자는 개인유지, 학습, 대리양육 이용하기, 가정 관리 돕기, 교제 및 여가 활동, 이동하기, 기타행동으로 구성된 총 7개의 대분류 중에서 본 연구와 중복이 되는 대리양육 이용하기와 가정관리 돕기, 기타행동은 제외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사를 추가하여 총 5개의 대분류로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한 문항들을 보육과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5단계 Likert 척도로써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해당사항 없음’은 0점(결측치)으로 측정하였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는 0점에서 13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함께 점수가 높을수록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준문항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양육활동 어려움을 측정하는 25문항의 총점과 “나는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힘들다”는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그 결과 $r = .786$ 으로 나타나 기준문항 타당도에 의한 타당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채구목, 2013).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내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하여 직접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많은 변수들을 적은 수의 몇 가지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그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한 각 문항을 몇 가지 소수의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각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 곧 타당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추출법으로 주성분법(Principle Components)을 실시하였으며, 지정한 고유치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요인회전과 관련하여 베리맥스(Varimax)회전을 실시하였다. 베리맥스는 요인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

용되는 방법이다. 각 변수의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 재량(factor loading)의 수용기준은 보통 .30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은 .50이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40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요인분석은 분석방법의 특성상 각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하는데 KMO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각 항목들 간의 상관행력을 확인함으로써 사용 항목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가를 나타내주는 방법이다. Kaise-Mayer-Olkin(KMO)는 변수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어지는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측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보통 KMO값이 .90이상이면 아주 좋은 것이고 .50이하이면 변수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양육활동 어려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1953.963(p=0.000)$ 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862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요인 1(22.896%)은 '학습 및 여가'로 명명하였고, 요인 2(19.010%)는 '개인유지'로, 요인 3(14.636%)은 '이동하기'로, 요인 4(11.747%)는 '가사'로, '요인 5(9.345%)는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로 명명하였다. 이 5개의 요인 적재값이 $\pm .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양육활동 어려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분	성분				
	학습 및 여가	개인유지	이동하기	가사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양육활동 어려움10	.836	.146	.192	-.039	.151
양육활동 어려움14	.836	.165	-.032	.184	.285
양육활동 어려움13	.795	.171	.168	.105	.328
양육활동 어려움15	.750	.033	.198	.135	.392
양육활동 어려움9	.710	.411	.293	.085	.133
양육활동 어려움7	.685	.477	.361	.089	.020
양육활동 어려움8	.648	.466	.398	.074	.030
양육활동 어려움12	.607	.296	.210	-.088	-.038
양육활동 어려움11	.584	.238	.473	.219	.040
양육활동 어려움2	.146	.812	.065	.249	.254
양육활동 어려움4	.260	.748	.022	.038	.258
양육활동 어려움5	.196	.718	.432	.186	.107
양육활동 어려움6	.239	.715	.410	.220	.129
양육활동 어려움3	.416	.698	.173	.094	.250
양육활동 어려움1	.182	.647	.333	-.071	.145
양육활동 어려움22	.283	.206	.752	.379	.189
양육활동 어려움21	.373	.219	.706	.282	.221
양육활동 어려움19	.238	.309	.703	.287	.344
양육활동 어려움20	.312	.375	.699	.173	.291
양육활동 어려움24	.120	.066	.184	.896	.130
양육활동 어려움23	.131	.165	.170	.883	.006
양육활동 어려움25	-.045	.076	.167	.816	.014
양육활동 어려움17	.287	.340	.188	-.047	.765
양육활동 어려움18	.271	.363	.335	.197	.642
양육활동 어려움16	.273	.392	.353	.110	.636
고유값	5.724	4.752	3.659	2.937	2.336
분산설명(%)	22.896	19.010	14.636	11.747	9.345
누적설명(%)	22.896	41.906	56.542	68.288	77.633
신뢰도	.945	.900	.948	.879	.880

KMO=0.862, Bartlett's test $\chi^2=1953.963$ (df=300, Sig.=0.000)

3) 삶의 만족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Tobin에 의해 개발되어진 Life Satisfaction Index(LSI)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12개 항목으로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그저 그렇다’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하였다. 이 중 1번, 3번, 5번, 8번, 11번, 12번 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점수는 최소12점에서부터 최대 60점까지 점수분포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3$ 이다.

<표 3> 삶의 만족

	문 항	M	SD
1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것 같다.	3.92	1.042
2	내 인생을 회고해 보면 정말 행복하다.	3.45	.960
3	가능한 일이라면 내 과거를 바꿨으면 좋겠다.	3.47	1.255
4	요즘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들이다.	3.36	.975
5	대부분의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다.	3.74	1.027
6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항상 흥미를 느낀다.	3.37	.936
7	미래에 대해 무언가 기쁘고 흥미있는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한다.	3.41	1.070
8	지치고 늙었다고 생각된다.	3.45	1.280
9	남은 인생에 많은 것을 기대한다.	3.15	1.056
10	지금도 바쁘고 가치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3.48	1.015
11	요즘 들어서 사소한 일에도 괴로움을 느낀다.	3.56	1.058
12	조금만 일에도 쉽게 화가 난다.	3.62	1.060
α = 0.93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자녀(손자녀의 부모)가 맞벌이 부부여서 자녀 대신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손자녀를 양육한다 함은 손자녀를 일주일 중 몇 일, 하루의 몇 시간 등 정해진 기간(시간)에 정기적으로 돌보는 경우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1) 현재 자녀(손자녀의 부모)가 맞벌이(학업 포함) 중인 자
- (2) 손자녀의 연령이 현재 만0세~만6세(취학전) 이하인 자
- (3) 본 연구의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 (4)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3월 16일부터 2016년 5월 2일까지 일대일 대면 조사와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비확률 표집 방법으로 하였다. 손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들로 조직된 비공식적인 모임과 약 13곳의 어린이집 도움을 받아 조사 대상자들을 표집하였다. 배포된 200부의 설문지 가운데 139부가 회수되었으나, 적절하지 않은 5부를 제외한 총 134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 사용된 설문지의 지역분포는 무응답 1부를 제외하고 서울 96부, 경기 8부, 광주 29부 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Versio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손자녀 양육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을 사용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손자녀를 양육하는 표본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어려움의 영향력을 크기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VIF값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양육효능감과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와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5. 표본의 일반적 특성

1) 조부모 특성

다음 <표 4>는 조부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성 20명(14.9%), 여성 113명(84.3%)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61.13세로, 50대는 56명(41.8%), 60대는 64명(47.8%), 70대 이상은 11명(8.2%)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무학 5명(3.7%), 초등학교 22명(16.4%), 중학교 26명(19.4%), 고등학교 40명(29.9%), 전문대학 이상 40명(29.9%)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유 76명(57.1%), 무 57명(42.5%)으로 나타났고, 결혼상태는 배우자 있음 114명(85.1%), 배우자 없음 17명(12.7%)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건강상태는 건강이 매우 안 좋다 5명(3.7%), 건강이 나쁜 편이다 19명(14.2%), 그저 그

령다 42명(31.3%), 건강이 좋은 편이다 50명(37.3%), 건강이 매우 좋다 11명(8.2%)으로 나타났다. 직업활동은 유 50명(37.3%), 무 82명(61.2%)으로 나타났고, 총 가구소득은 평균 261.78만원으로, 100만원 미만 15명(11.2%), 100-150만원 미만 23명(17.2%), 150-200만원 미만 23명(17.2%), 200-300만원 미만 22명(16.4%), 300-500만원 미만 29명(21.6%), 500만원 이상 15명(11.2%)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는 1명 9명(6.7%), 2명 71명(53.0%), 3명 34명(25.4%), 4명 14명(10.4%), 5명 이상 6명(4.5%)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손자녀수는 1명 71명(53.0%), 2명 53명(39.6%), 3명 9명(6.7%)으로 나타났다.

<표 4> 조부모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성	20	14.9
	여성	113	84.3
	무응답	1	.7
연령	50대	56	41.8
	60대	64	47.8
	70대 이상	11	8.2
	무응답	3	2.2
	M±SD	61.13±5.599(세)	
교육수준	무학	5	3.7
	초등학교	22	16.4
	중학교	26	19.4
	고등학교	40	29.9
	전문대학 이상	40	29.9
	무응답	1	.7
종교	유	76	57.1
	무	57	42.5
	무응답	1	.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14	85.1
	배우자 없음	17	12.7
	무응답	1	.7
건강상태	건강이 매우 안 좋다	5	3.7
	건강이 나쁜 편이다	19	14.2
	그저 그렇다	42	31.3
	건강이 좋은 편이다	50	37.3
	건강이 매우 좋다	11	8.2
	무응답	7	5.2
직업활동	유	50	37.3
	무	82	61.2
	무응답	2	1.5
총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5	11.2
	100-150만원 미만	23	17.2
	150-200만원 미만	23	17.2
	200-300만원 미만	22	16.4
	300-500만원 미만	29	21.6
	500만원 이상	15	11.2
	무응답	7	5.2
	M±SD	261.78±214.064(만원)	
자녀 수	1명	9	6.7
	2명	71	53.0
	3명	34	25.4
	4명	14	10.4
	5명 이상	6	4.5
양육 손자녀수	1명	71	53.0
	2명	53	39.6
	3명	9	6.7
	무응답	1	.7
합계		134	100.0

2) 손자녀 특성

다음 <표 5>는 손자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손자녀 성별은 남자 58명(43.3%),

여자 74명(55.2%)으로 나타났고, 손자녀 연령은 평균 3.36세로, 만0세-만2세 45명(33.6%), 만3세-만5세 67명(50.0%), 만6세-만7세 22명(16.4%)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와의 관계는 외할머니 72명(53.7%), 친할머니 45명(33.6%), 외할아버지 9명(6.7%), 친할아버지 8명(6.0%) 순으로 나타났고, 손자녀 질병여부는 유 11명(8.2%), 무 123명(91.8%)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유치원/어린이집 등원여부는 유 99명(73.9%), 무 33명(24.6%)으로 나타났다.

<표 5> 손자녀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손자녀 성별	남자	43.3
	여자	55.2
	무응답	1.5
손자녀 연령	만0세-만2세	33.6
	만3세-만5세	50.0
	만6세-만7세	16.4
	M±SD	3.36±1.869(세)
손자녀와의 관계	친할머니	33.6
	외할머니	53.7
	친할아버지	6.0
	외할아버지	6.7
손자녀 질병여부	유	8.2
	무	91.8
손자녀 유치원/어린이집 등원여부	유	73.9
	무	24.6
	무응답	1.5
합계	134	100.0

3) 양육환경 특성

다음 <표 6>는 양육환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손자녀 양육동기는 손주를 돌보는 보람과 애정 때문에 58명(43.9%), 부모로서의 도리와 의무감에서 39명(29.5%),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므로 27명(20.5%),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와 내 혈육을 남에게 맡기기 싫어서가 각 25명(18.9%) 순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62명(46.3%), 비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38명(28.4%), 받지 않음 31명(23.1%)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62명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60.25만원으로, 50만원 미만 23명(37.1%), 50-100만원 미만 22명(35.5%), 100만원 이상 14명(22.6%)으로 나타났고, 손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돌봄 61명(45.5%), 혼자 돌봄 57명(42.5%), 손자녀의 친척과 함께 돌봄 10명(7.5%), 베이비시터 등과 함께 돌봄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양육기간은 평균 29.84개월로 1년 미만 26명(19.4%), 1-3년 미만 55명(41.0%), 3-5년 미만 33명(24.6%), 5년 이상 19명(14.2%)으로 나타났고, 손자녀 양육일수는 평균 5.02일로, 2일 10명(7.5%), 3일 11명(8.2%), 4일 6명(4.5%), 5일 65명(48.5%), 6일 16명(11.9%), 7일 22명(16.4%)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양육시간은 평균 7.25시간으로, 5시간 미만 44명(32.8%), 5-7시간 미만 33명(24.6%), 7-10시간 미만 24명(17.9%), 10시간 이상 30명(22.4%)으로 나타났고, 손자녀 양육장소는 손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나의 집에서 돌봄 61명(45.5%), 손자녀 및 그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돌봄 31명(23.1%), 손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손자녀 집으로 가서 돌봄 26명(19.4%), 손자녀와만 함께 살면서 나의 집에서 돌봄 12명(9.0%), 손자녀와만 함께 살면서 나의 집에서 돌봄 2명(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양육환경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손자녀 양육동기 (다중응답)	부모로서의 도리와 의무감에서	39	29.5
	손주를 돌보는 보람과 애정 때문에	58	43.9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므로	27	20.5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25	18.9
	내 혈육을 남에게 맡기기 싫어서	25	18.9
	기타	3	2.3
손자녀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62	46.3
	비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38	28.4
	받지 않음	31	23.1
	무응답	3	2.2
손자녀 돌봄에 대한 정기적 경제적 지원 금액	50만원 미만	23	37.1
	50-100만원 미만	22	35.5
	100만원 이상	14	22.6
	무응답	3	4.8
	계	62	100.0
	M±SD	60.25±40.069(만원)	
손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람	혼자 돌봄	57	42.5
	배우자와 함께 돌봄	61	45.5
	손자녀의 친척과 함께 돌봄	10	7.5
	베이비시터 등과 함께 돌봄	1	.7
	기타	4	3.0
	무응답	1	.7
손자녀 양육기간	1년 미만	26	19.4
	1-3년 미만	55	41.0
	3-5년 미만	33	24.6
	5년 이상	19	14.2
	무응답	1	.7
	M±SD	29.84±20.341(개월)	
손자녀 양육일수	2일	10	7.5
	3일	11	8.2
	4일	6	4.5
	5일	65	48.5
	6일	16	11.9
	7일	22	16.4

	무응답	4	3.0
	M±SD	5.02±1.375(일)	
손자녀 양육시간	5시간 미만	44	32.8
	5-7시간 미만	33	24.6
	7-10시간 미만	24	17.9
	10시간 이상	30	22.4
	무응답	3	2.2
	M±SD	7.25±4.980(시간)	
손자녀 양육장소	손자녀 및 그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돌봄	31	23.1
	손자녀와만 함께 살면서 나의 집에서 돌봄	12	9.0
	손자녀와만 함께 살면서 손자녀 집으로 가서 돌봄	2	1.5
	손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나의 집에서 돌봄	61	45.5
	손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손자녀 집으로 가서 돌봄	26	19.4
	기타	1	.7
	무응답	1	.7
	합계	134	100.0

4)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관련 정책 지원 요구도

다음 <표 7>는 손자녀 양육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교육 필요성은 매우 그렇다 27명(20.1%), 대체로 그렇다 62명(46.3%), 그저 그렇다 32명(23.9%), 대체로 그렇지 않다 8명(6.0%), 전혀 그렇지 않다 1명(0.7%)으로 나타나 전체 66.4%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교육 참여의향은 매우 그렇다 18명(13.4%), 대체로 그렇다 49명(36.6%), 그저 그렇다 35명(26.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0명(14.9%), 전혀 그렇지 않다 7명(5.2%)으로 나타나 전체 50.0%가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부모-손자녀 돌봄수당 지급여부는 받은 적이 없음 88명(65.7%), 잘 모르겠음 33명(24.6%), 전에는 받았지만 현재는 받고 있지 않음 7명(5.2%), 현재 받고 있음 2명(1.5%) 순으로 나타났고, 손자녀 양육시 가장 필요한 지

원은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에게 수당 지급 85명(65.4%), 집으로 찾아오는 손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55명(42.3%), 손자녀 돌봄 교육프로그램 제공 53명(40.8%),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육아 공간 제공 29명(22.3%),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모임 지원(자조모임) 16명(12.3%),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15명(1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손자녀 양육관련 정책 지원 요구도

	구분	빈도(N)	백분율(%)
교육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1	.7
	대체로 그렇지 않다	8	6.0
	그저 그렇다	32	23.9
	대체로 그렇다	62	46.3
	매우 그렇다	27	20.1
	무응답	4	3.0
교육 참여의향	전혀 그렇지 않다	7	5.2
	대체로 그렇지 않다	20	14.9
	그저 그렇다	35	26.1
	대체로 그렇다	49	36.6
	매우 그렇다	18	13.4
	무응답	5	3.7
조부모-손자녀 돌봄수당 지급여부	현재 받고 있음	2	1.5
	전에는 받았지만 현재는 받고 있지 않음	7	5.2
	받은 적이 없음	88	65.7
	잘 모르겠음	33	24.6
	무응답	4	3.0
손자녀 양육시 가장 필요한 지원 (다중응답)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육아 공간 제공	29	22.3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모임 지원(자조모임)	16	12.3

집으로 찾아오는 손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55	42.3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15	11.5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에게 수당 지급	85	65.4
손자녀 돌봄 교육프로그램 제공	53	40.8
기타	2	1.5
합계	134	100.0

IV. 연구결과

1. 조부모 특성, 손자녀 특성,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

1) 조부모 특성, 손자녀 특성,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특성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8>와 같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은 평균 3.62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부모 특성에 따라서는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총 가구소득, 자녀 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먼저 연령에 따라서는 50대의 경우 60-70대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비교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300만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 미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

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 수에 따라서는 2명인 경우 4명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조부모 특성에 따른 양육 효능감 차이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t/F-value	p
성별	남성	3.48	.749	-.877	.382
	여성	3.64	.754		
연령	50대	3.92 ^b	.618	11.006***	.001
	60대	3.41 ^a	.708		
	70대 이상	3.11 ^a	.958		
교육수준	무학	2.76 ^a	.970	8.577***	.001
	초등학교	3.10 ^{ab}	.857		
	중학교	3.52 ^{bc}	.650		
	고등학교	3.71 ^c	.536		
	전문대학 이상	3.99 ^c	.679		
종교	유	3.77	.637	2.698**	.008
	무	3.41	.84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72	.676	3.002**	.007
	배우자 없음	3.02	.928		
건강상태	건강이 매우 안 좋다	2.53 ^a	.938	13.709***	.001
	건강이 나쁜 편이다	2.96 ^a	.845		
	그저 그렇다	3.53 ^b	.564		
	건강이 좋은 편이다	3.97 ^b	.632		
	건강이 매우 좋다	4.05 ^b	.402		
직업 활동	유	3.70	.672	.983	.328
	무	3.56	.803		

총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47 ^{ab}	.601	6.403 ^{***}	.001
	100-150만원 미만	3.05 ^a	.827		
	150-200만원 미만	3.47 ^{ab}	.683		
	200-300만원 미만	3.72 ^{bc}	.502		
	300-500만원 미만	3.99 ^c	.738		
	500만원 이상	4.00 ^c	.567		
자녀 수	1명	3.73 ^{ab}	1.024	5.036 ^{**}	.001
	2명	3.85 ^b	.600		
	3명	3.34 ^{ab}	.798		
	4명	3.17 ^a	.810		
	5명 이상	3.26 ^{ab}	.582		
양육 손자녀수	1명	3.68	.835	.687	.505
	2명	3.56	.666		
	3명	3.43	.511		

*p<.05,

**p<.01,

***p<.001

Duncan : a<b<c<d

손자녀 특성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결과 손자녀 성별, 손자녀 질병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손자녀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의 경우 남자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손자녀 질병여부에 따라서는 질병이 없는 경우 질병이 있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손자녀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 차이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t/F-value	p	
손자녀 성별	남자	3.42	.782	-2.795 ^{**}	.006
	여자	3.78	.694		
손자녀 연령	만0세-만2세	3.64	.704	.427	.653

	만3세-만5세	3.64	.717		
	만6세-만7세	3.48	.944		
손자녀와의 관계	친할머니	3.45	.845	1.276	.285
	외할머니	3.73	.680		
	친할아버지	3.57	.942		
	외할아버지	3.62	.545		
손자녀 질병여부	유	3.18	.726	-2.023*	.045
	무	3.65	.744		
손자녀 유치원/어린이집 등원여부	유	3.59	.737	-.585	.559
	무	3.68	.819		

*p<.05, **p<.01

양육환경 특성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분석결과 손자녀 돌봄에 대한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금액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100만원 미만에 비해 100만원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 차이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F-value	p
손자녀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3.58	.750	2.366	.098
	비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3.82	.665		
	받지 않음	3.44	.829		
손자녀 돌봄에 대한 정기적 경제적 지원 금액	50만원 미만	3.62 ^{ab}	.603	4.635*	.014
	50-100만원 미만	3.33 ^a	.910		
	100만원 이상	4.06 ^b	.406		
함께 돌보는 사람	혼자 돌봄	3.66	.815	.773	.545
	배우자와 함께 돌봄	3.56	.671		
	손자녀의 친척과 함께 돌봄	3.71	.843		
	베이비시터 등과 함께 돌봄	4.56	.000		

	기타	3.28	.863		
양육기간	1년 미만	3.71	.839	1.249	.295
	1-3년 미만	3.69	.559		
	3-5년 미만	3.55	.708		
	5년 이상	3.35	1.106		
양육일수	2일	3.59	.746	.392	.853
	3일	3.77	.583		
	4일	3.80	.987		
	5일	3.62	.747		
	6일	3.41	1.064		
	7일	3.58	.591		
양육시간	5시간 미만	3.76	.600	.906	.440
	5-7시간 미만	3.52	.804		
	7-10시간 미만	3.55	1.015		
	10시간 이상	3.53	.672		
양육장소	손자녀 및 그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돌봄	3.80	.679	1.381	.236
	손자녀와만 함께 살면서 나의 집에서 돌봄	3.69	.753		
	손자녀와만 함께 살면서 손자녀 집으로 가서 돌봄	3.06	.864		
	손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나의 집에서 돌봄	3.64	.764		
	손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손자녀 집으로 가서 돌봄	3.33	.772		
	기타	3.50	.000		
* Duncan : a<b p < . 0 5					

양육효능감을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조부모 특성에 따라 50대 일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 일 때,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연령의 경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살펴본 선행연구(전향미, 2009; 양은호 · 최혜순, 2011; 권정윤, 2013)에서 어머니

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지만, 본 연구 조부모에서는 60대 이상에 비해 50대가 양육효능감이 더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조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이미원, 2015), 어머니(양은호 · 최혜순, 2011), 아버지(황선실 · 황희숙, 2014)를 대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하지만 오진아(2007) · 서희(2012)의 교육정도와 양육효능감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종교의 경우, 종교와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에는 차이가 없음을 밝힌 오진아(2007)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배우자의 유무와 관계를 살펴본 바, 조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권영희(2010)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건강상태의 경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를 연구(오진아, 2007; 권영희, 2010; 이미원, 2015)한 결과와 동일하게 건강상태가 좋은 조부모가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직업 활동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취업모가 양육효능감이 더 높은 결과(안지영, 2001; 송미혜, 2006; 김지현, 2011; 권정윤, 2013)와 전업주부가 더 높은 결과(허혜경·김민정, 2012)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지만,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직업 활동의 유무가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소득의 경우 다수의 선행연구(전인옥·이경옥, 1999; 최형성, 2005; 전향미; 2009; 양은호·최혜숙, 2011)와 일치한 결과로 양육효능감과 정적인 관계에 있다. 자녀 수의 경우 만 2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권정윤(2013)은 다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일수록 교육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지만 본 연구의 조부모의 경우 자녀의 수가 2명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권영희(2010)는 돌보는 손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보다 1명의 손자녀를 볼 때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 결과에서는 손자녀 수와 양육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손자녀 특성에 따라 여자 일 때, 질병이 없는 경우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손자녀의 성별의 경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 양육효능감은 여아를 둔 어머니가 더 높게 나타난 연구(최은숙·박영희, 2015)와 일치하면서 서희(2012)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손자녀의 연령의 경우, 조모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손자녀와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연구(권영희, 2010; 홍정아, 2010)와 영아기보다는 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 더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진다는 연구(김영주·송연숙; 2007)로 상반된 결과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손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손자녀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박화운·이영숙, 1999; Roberto & Stroes, 1992)와 일치한다. 질병여부의 경우 오진아(2007)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양육환경 특성에 따라 손자녀 돌봄에 대한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양육동기의 경우, 조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오진아, 2007; 김문정, 2009; 권영희, 2010)에서 손자녀 양육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는 양육효능감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경우, 조모가 용돈을 안받는 경우가 받는 경우보다 양육효능감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인 권영희(2010)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수고비와 양육효능감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밝힌 오진아(2007)와도 일치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양육기간의 경우, 3년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 돌본 기간이 짧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다는 연구(권영희, 2010)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조부모 특성, 손자녀 특성,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양육활동 어려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의 분석결과, 전체

적으로 볼 때, ‘학습 및 여가’(M=2.8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사’(M=2.87), ‘이동하기’(M=2.79),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M=2.61), ‘개인유지’(M=2.59)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은 평균 2.76 점으로 나타났다.

<표 11>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양육활동 어려움	개인유지	2.59	.966
	학습 및 여가	2.89	1.075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2.61	1.054
	이동하기	2.79	1.084
	가사	2.87	1.049
	전체	2.76	.877

또한 조부모 특성에 따라서는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양육활동 어려움의 하위요인별 개인유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5$),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1$), 50대에 비해 60-70대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1$),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학습 및 여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종교가 없는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학습 및 여가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 가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1$), 비교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인 경우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 가사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1$), 비교적 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4-5명 이상인 경우 2명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

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손자녀수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개인 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비교적 양육 손자녀수가 많을수록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명인 경우 1명이나 3명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12> 조부모 특성에 따른 양육활동 어려움 차이

구분	양육활동 어려움										전체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		가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	3.03	.794	2.69	.854	2.71	1.046	2.94	1.100	2.93	1.016	2.87	.764
	여성	2.51	.979	2.91	1.107	2.59	1.063	2.75	1.088	2.85	1.061	2.73	.898
	<i>t-value(p)</i>	2.609*(.014)		-.856(.393)		.460(.646)		.692(.490)		.296(.768)		.644(.520)	
연령	50대	2.08 ^a	.859	2.33 ^a	1.020	2.01 ^a	.850	2.17 ^a	.914	2.70	.928	2.24 ^a	.759
	60대	2.98 ^b	.800	3.22 ^b	.935	2.93 ^b	.953	3.22 ^b	1.006	2.96	1.047	3.08 ^b	.752
	70대 이상	3.09 ^b	1.184	3.58 ^b	.939	3.77 ^c	.761	3.45 ^b	.850	3.39	1.452	3.48 ^b	.804
	<i>t-value(p)</i>	18.039***(.000)		15.601***(.000)		25.741***(.000)		21.009***(.000)		2.366(.098)		23.811***(.000)	
교육수준	무학	2.60	1.475	3.69 ^c	.844	3.93 ^b	.760	3.60 ^b	.912	3.80	1.643	3.48 ^c	.990
	초등학교	3.06	.959	3.41 ^{bc}	.984	3.39 ^b	.929	3.20 ^b	1.028	3.08	1.054	3.28 ^{bc}	.734
	중학교	2.69	.977	3.44 ^{bc}	.841	2.59 ^a	1.004	2.91 ^{ab}	1.151	2.63	1.081	2.94 ^{bc}	.778
	고등학교	2.52	.881	2.85 ^b	.993	2.63 ^a	.957	2.91 ^{ab}	1.046	2.89	1.108	2.76 ^{ab}	.838
	전문대학 이상	2.33	.928	2.15 ^a	.933	2.00 ^a	.864	2.24 ^a	.944	2.75	.837	2.24 ^a	.782

	<i>F-value(p)</i>	2.237(.069)	10.926 ^{***} (.000)	10.769 ^{***} (.000)	4.738 ^{**} (.001)	1.693(.156)	7.890 ^{***} (.000)						
종교	유	2.50	.968	2.70	1.075	2.40	.977	2.63	1.103	2.76	1.031	2.60	.874
	무	2.71	.966	3.12	1.030	2.89	1.105	2.99	1.039	3.01	1.070	2.95	.851
	<i>t-value(p)</i>	-1.244(.216)	-2.290 [*] (.024)	-2.688(.088)	-1.928(.056)	-1.339(.183)	-2.270 [*] (.02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52	.899	2.79	1.042	2.50	1.000	2.71	1.030	2.86	.957	2.67	.838
	배우자 없음	2.89	1.252	3.35	1.143	3.39	1.168	3.24	1.248	3.04	1.554	3.23	1.007
	<i>t-value(p)</i>	-1.518(.131)	-2.044 [*] (.043)	-3.374 ^{**} (.001)	-1.896(.060)	-.467(.646)	-2.513 [*] (.013)						
건강상태	건강이 매우 안 좋다	3.69 ^b	1.022	3.42 ^b	1.076	3.73 ^c	1.011	3.55 ^b	1.151	3.40 ^c	1.588	3.57 ^b	.957
	건강이 나쁜 편이다	3.43 ^b	.824	3.58 ^b	.858	3.65 ^c	.671	3.75 ^b	.664	3.39 ^c	1.227	3.52 ^b	.615
	그저 그렇다	2.60 ^a	.828	3.30 ^b	.944	2.92 ^b	.954	3.04 ^b	.981	3.15 ^{bc}	.929	3.04 ^b	.719
	건강이 좋은 편이다	2.19 ^a	.912	2.36 ^a	.985	2.03 ^a	.803	2.27 ^a	1.012	2.52 ^{ab}	.946	2.27 ^a	.754
	건강이 매우 좋다	2.21 ^a	.862	2.10 ^a	.979	1.67 ^a	.856	2.17 ^a	1.035	2.30 ^a	.875	2.08 ^a	.772
	<i>F-value(p)</i>	9.460 ^{***} (.000)	10.419 ^{***} (.000)	19.784 ^{***} (.000)	10.637 ^{***} (.000)	4.743 ^{**} (.001)	16.111 ^{***} (.000)						
직업활동	유	2.60	.906	2.79	1.022	2.39	.871	2.61	1.025	2.68	1.034	2.65	.791
	무	2.59	1.000	2.96	1.119	2.71	1.137	2.89	1.112	3.00	1.055	2.83	.930
	<i>t-value(p)</i>	.093(.926)	-.902(.369)	-1.857(.066)	-1.421(.158)	-1.706(.090)	-1.141(.256)						
총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88	.738	3.44 ^b	.865	3.22 ^d	.923	3.18 ^{cd}	.993	3.20	.950	3.18 ^c	.755
	100-150만원 미만	2.87	1.150	3.45 ^b	.907	3.23 ^d	1.032	3.40 ^d	.970	3.29	1.308	3.25 ^c	.859
	150-200만원 미만	2.80	.846	3.16 ^b	.840	2.91 ^{cd}	.886	2.90 ^{bc}	1.040	2.77	.881	2.95 ^c	.638
	200-300만원 미만	2.58	.843	3.05 ^b	.950	2.56 ^{bc}	.928	2.70 ^{ab}	.937	2.68	1.166	2.78 ^{bc}	.797
	300-500만원 미만	2.19	1.008	2.26 ^a	1.130	2.02 ^{ab}	.891	2.45 ^{ab}	1.123	2.79	.783	2.29 ^{ab}	.859
	500만원 이상	2.48	1.014	2.03 ^a	.818	1.76 ^a	.672	2.05 ^a	.887	2.57	.930	2.16 ^a	.774
	<i>F-value(p)</i>	1.935(.093)	8.170 ^{***} (.000)	9.150 ^{***} (.000)	4.509 ^{**} (.001)	1.590(.168)	6.638 ^{***} (.000)						
자녀 수	1명	2.69 ^{ab}	1.000	2.87 ^{ab}	1.216	2.48 ^{ab}	1.237	2.79 ^{ab}	1.273	3.30	1.428	2.76 ^{ab}	1.081

	2명	2.36 ^a	.962	2.63 ^a	1.107	2.30 ^a	1.003	2.54 ^a	1.071	2.70	.966	2.50 ^a	.859
	3명	2.81 ^{ab}	.927	3.10 ^{ab}	.946	2.96 ^{ab}	.956	2.93 ^{ab}	.970	3.07	.894	2.99 ^{ab}	.796
	4명	3.05 ^b	.944	3.67 ^b	.688	3.10 ^{ab}	1.082	3.41 ^{ab}	1.108	2.90	1.363	3.36 ^b	.626
	5명 이상	2.87 ^{ab}	.720	2.95 ^{ab}	1.061	3.25 ^b	.743	3.50 ^b	.685	3.00	1.414	3.04 ^{ab}	.791
	<i>F-value(p)</i>	2.477 [*] (.047)		3.478 [*] (.010)		4.161 ^{**} (.003)		2.931 [*] (.023)		1.149(.336)		4.339 ^{**} (.003)	
양육 손자녀 수	1명	2.42 ^a	.995	2.55 ^a	1.084	2.39 ^a	1.035	2.65	1.076	2.79	1.024	2.55 ^a	.877
	2명	2.86 ^b	.878	3.23 ^b	.964	2.78 ^{ab}	1.055	2.90	1.116	2.94	1.049	2.96 ^{ab}	.847
	3명	2.30 ^a	.989	3.46 ^b	.705	3.26 ^b	.878	3.13	.952	3.00	1.333	3.05 ^b	.757
	<i>F-value(p)</i>	3.625 [*] (.029)		8.355 ^{***} (.000)		4.060 [*] (.019)		1.323(.270)		.417(.660)		4.058 [*] (.020)	

^{*}p<.05,
Duncan : a<b<c<d

^{**}p<.01,

^{***}p<.001

손자녀 특성에 따라 양육활동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분석결과 손자녀 성별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질병여부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질병이 있는 경우 질병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하위요인별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유치원/어린이집 등원여부에 따라서는 양육활동 어려움의 하위요인별 학습 및 여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유치원/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경우 등원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및 여가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손자녀 특성에 따른 양육활동 어려움 차이

구분	양육활동 어려움										전체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		가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손자녀 성별	남자	2.90	1.032	3.29	.963	3.04	.988	3.13	1.035	2.96	1.123	3.10	.837
	여자	2.35	.853	2.58	1.076	2.25	.990	2.52	1.067	2.79	1.005	2.48	.826
	<i>t-value(p)</i>	3.299**(.001)		3.939***(.000)		4.561***(.000)		3.274**(.001)		.923(.358)		4.234***(.000)	
손자녀 연령	만0세-만2세	2.53	.904	2.61	1.022	2.41	.951	2.71	.959	2.96	.886	2.64	.782
	만3세-만5세	2.66	1.025	3.00	1.096	2.60	1.090	2.84	1.154	2.74	1.151	2.79	.940
	만6세-만7세	2.52	.936	3.12	1.050	3.00	1.079	2.77	1.145	3.11	1.013	2.91	.867
	<i>F-value(p)</i>	.302(.740)		2.424(.093)		2.323(.102)		.188(.829)		1.252(.289)		.788(.457)	
손자녀와의 관계	친할머니	2.71	1.139	3.09	1.146	2.71	1.132	2.83	1.195	2.97	1.101	2.87	1.015
	외할머니	2.45	.895	2.86	1.082	2.54	1.006	2.75	1.019	2.79	1.029	2.69	.820
	친할아버지	2.74	.597	2.65	.654	2.83	1.222	2.78	1.250	2.57	1.357	2.69	.790
	외할아버지	2.97	.755	2.35	.791	2.39	.965	2.86	1.032	3.22	.624	2.77	.701
<i>F-value(p)</i>	1.236(.300)		1.436(.235)		.484(.694)		.061(.980)		.813(.489)		.379(.768)		
손자녀 질병여부	유	3.36	.875	3.76	.993	3.24	.790	3.36	.931	3.27	1.263	3.48	.753
	무	2.52	.947	2.81	1.051	2.55	1.058	2.73	1.085	2.83	1.026	2.69	.860
	<i>t-value(p)</i>	2.831**(.005)		2.893**(.004)		2.118*(.036)		1.863(.065)		1.334(.185)		2.941**(.004)	
손자녀 유치원/어린이집 등원여부	유	2.58	.953	3.03	1.040	2.69	1.049	2.89	1.116	2.87	1.092	2.82	.873
	무	2.64	1.040	2.52	1.124	2.38	1.074	2.54	.971	2.87	.962	2.60	.901
	<i>t-value(p)</i>	-.293(.770)		2.371*(.019)		1.453(.149)		1.596(.113)		.026(.980)		1.202(.232)	

*p<.05,
Duncan : a<b<c

**p<.01,

***p<.001

양육환경 특성에 따라 양육활동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분석결과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금액에 따라서는 양육활동 어려움의 하위요인별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100만원 미만의 경우 100만원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양육활동 어려움 차이

구분	양육활동 어려움										전체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		가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경제적 지원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2.75	1.028	3.03	1.084	2.66	1.057	2.78	1.114	2.90	1.130	2.87	.874
	비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2.31	.899	2.61	1.127	2.30	1.056	2.50	1.032	2.90	.881	2.50	.866
	받지 않음	2.62	.845	2.98	.982	2.84	.936	3.10	.923	2.73	1.002	2.84	.827
	<i>F-value(p)</i>	2.587(.079)		1.856(.161)		2.592(.079)		2.790(.065)		.312(.732)		2.291(.105)	
정기적 경제적 지원 금액	50만원 미만	2.65	.888	3.25 ^b	.916	2.78 ^b	.856	2.76	.940	2.94	1.242	2.92	.763
	50-100만원 미만	3.06	1.097	3.21 ^b	.991	3.02 ^b	1.211	3.04	1.216	3.03	1.105	3.12	.925
	100만원 이상	2.42	.910	2.44 ^a	1.256	1.95 ^a	.794	2.39	1.055	2.83	.985	2.43	.732
	<i>F-value(p)</i>	1.985(.147)		3.166*(.050)		5.144**(.009)		1.557(.220)		.129(.879)		3.032(.056)	
함께 돌보는 사람	혼자 돌봄	2.51	1.066	2.77	1.244	2.65	1.211	2.58	1.162	2.85	1.084	2.67	1.001
	배우자와 함께 돌봄	2.76	.791	3.08	.860	2.67	.881	3.00	.948	2.86	.998	2.90	.725
	손자녀의 친척과 함께 돌봄	1.99	.717	2.42	1.034	2.07	.979	2.53	1.069	2.93	1.109	2.35	.743
	베이비시터 등과 함께 돌봄	3.00	.000	2.22	.000	2.00	.000	2.50	.000	3.00	.000	2.48	.000
	기타	3.02	1.725	3.38	1.253	2.92	1.134	3.63	1.164	3.50	1.232	3.39	.865
<i>F-value(p)</i>	1.808(.131)		1.464(.217)		.906(.463)		1.965(.104)		.371(.829)		1.696(.155)		
양육 기간	1년 미만	2.53	.974	2.45	.985	2.27	.993	2.59	1.000	2.97	.933	2.53	.811
	1-3년 미만	2.53	.880	2.90	1.076	2.57	.991	2.72	1.050	2.72	1.094	2.71	.841
	3-5년 미만	2.63	1.018	3.05	1.085	2.76	1.035	2.87	1.012	2.89	.890	2.84	.897

	5년 이상	2.86	1.087	3.27	1.026	3.00	1.212	3.22	1.323	3.23	1.222	3.13	.918
	<i>F-value(p)</i>	.607(.612)	2.604(.055)	2.088(.105)	1.431(.237)	1.212(.308)	1.931(.128)						
양육 일수	2일	2.90	1.004	2.77	1.244	2.72	.994	3.06	1.171	2.13	.757	2.75	.881
	3일	2.55	.922	2.84	1.105	2.48	1.026	2.82	.767	3.12	.910	2.83	.638
	4일	2.19	.659	2.04	.744	1.72	.491	1.92	1.033	2.78	1.223	2.07	.712
	5일	2.51	.881	2.97	1.029	2.63	1.043	2.69	1.064	2.79	.968	2.73	.846
	6일	2.75	1.061	3.10	1.058	2.75	1.196	3.15	1.244	3.40	1.261	3.01	.980
	7일	2.75	1.140	2.86	1.217	2.64	1.074	2.91	1.031	3.08	1.028	2.85	.966
	<i>F-value(p)</i>	.730(.602)	.957(.447)	.973(.437)	1.443(.214)	2.283(.050)	1.104(.362)						
양육 시간	5시간 미만	2.54	.904	2.75	.960	2.41	.877	2.65	1.010	2.77	1.023	2.63	.724
	5-7시간 미만	2.66	.835	3.13	.995	2.72	1.106	2.89	1.065	2.94	1.078	2.88	.851
	7-10시간 미만	2.59	1.150	2.73	1.314	2.74	1.311	2.72	1.206	2.88	.864	2.73	1.091
	10시간 이상	2.65	1.024	3.02	1.057	2.73	.945	3.02	1.050	3.02	1.131	2.90	.849
	<i>F-value(p)</i>	.119(.949)	1.130(.340)	.904(.441)	.808(.491)	.400(.753)	.802(.495)						
양육장 소	손자녀 및 그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돌봄	2.40	.991	2.72	1.191	2.57	1.178	2.57	1.154	2.77	.952	2.61	.886
	손자녀와만 함께 살면서 나의 집에서 돌봄	2.53	1.059	3.22	.922	2.44	.808	3.00	1.006	3.11	1.321	2.86	.826
	손자녀와만 함께 살면서 손자녀 집으로 가서 돌봄	3.42	.825	3.83	1.493	3.33	.471	3.63	.884	4.00	1.414	3.69	1.126
	손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나의 집에서 돌봄	2.57	.884	2.79	1.039	2.63	1.047	2.75	1.039	2.89	.952	2.72	.859
	손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손자녀 집으로 가서 돌봄	2.94	.992	3.24	.934	2.73	1.020	3.11	1.039	2.87	1.147	3.02	.802
	기타	1.17	.000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1.09	.000
	<i>F-value(p)</i>	1.737(.131)	2.048(.076)	.797(.554)	1.659(.149)	1.317(.261)	1.974(.087)						

*p<.05,

Duncan : a<b

**p<.01

양육활동 어려움을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조부모 특성에 따라 남성의 경우 개인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높았다. 60대 이상이 전반적인 양육활동의 어려움과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학습 및 여

가, 가정놀이 및 동해하기,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높았다. 종교가 없는 경우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학습 및 여가에 대한 어려움이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았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 가사에 대한 어려움이 높았으며 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았다. 자녀 수가 4-5명 이상인 경우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았으며 양육 손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았다. 또 손자녀 수가 2명인 경우 개인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높았다.

손자녀 특성에 따라서는 남자인 경우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았으며, 질병이 있는 경우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았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 등원하는 경우 학습 및 여가에 대한 어려움이 높았다.

양육환경 특성에 따라 손자녀 돌봄에 대한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높았다.

3)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은 평균 3.49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부모 특성에 따라서는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

상태, 총 가구소득, 자녀 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1$).

먼저 연령에 따라서는 50대의 경우 60-70대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비교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300만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 미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 수에 따라서는 2명인 경우 5명 이상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조부모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 차이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t/F-value	p
성별	남성	3.53	.709	.216	.829
	여성	3.49	.827		
연령	50대	3.82 ^b	.688	10.828***	.001
	60대	3.28 ^a	.784		
	70대 이상	2.93 ^a	.912		
교육수준	무학	2.58 ^a	.884	10.810***	.001
	초등학교	2.92 ^{ab}	.780		
	중학교	3.28 ^{bc}	.721		
	고등학교	3.59 ^{cd}	.643		
	전문대학 이상	3.96 ^d	.704		

종교	유	3.67	.747	2.964**	.004
	무	3.26	.83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61	.743	4.240***	.001
	배우자 없음	2.77	.891		
건강상태	건강이 매우 안 좋다	2.17 ^a	.729	31.457***	.001
	건강이 나쁜 편이다	2.61 ^a	.691		
	그저 그렇다	3.32 ^b	.495		
	건강이 좋은 편이다	3.99 ^c	.607		
	건강이 매우 좋다	4.17 ^c	.485		
직업활동	유	3.61	.718	1.248	.214
	무	3.43	.863		
총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2 ^{ab}	.584	10.179***	.001
	100-150만원 미만	2.82 ^a	.711		
	150-200만원 미만	3.37 ^{bc}	.738		
	200-300만원 미만	3.59 ^{cd}	.721		
	300-500만원 미만	4.00 ^d	.667		
	500만원 이상	3.96 ^d	.743		
자녀 수	1명	3.69 ^{ab}	1.133	4.949**	.001
	2명	3.74 ^b	.688		
	3명	3.15 ^{ab}	.788		
	4명	3.13 ^{ab}	.754		
	5명 이상	3.07 ^a	.881		
양육 손자녀수	1명	3.59	.878	1.064	.348
	2명	3.40	.756		
	3명	3.33	.398		

**p<.01,

***p<.001

Duncan : a<b<c<d

삶의 만족을 조부모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50대일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총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삶의 만족이 높았

다.

성별의 경우, 선행연구(김태현 외, 1999; 권중돈·조주연, 2000)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한다는 정명숙(2005)의 결과와는 상반되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선행연구(오진아, 2006; 최명희, 2012; 김미령,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중년기 조부모의 경우 손자녀 양육자로서의 전이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노년기 조부모의 경우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밝힌 전해정 외(2013)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교육수준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연구(강상경, 2012; 최명희, 2012; 이현진, 2015)와 일치하며, 교육수준과 생활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힌 진미정·옥선화(1994)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종교의 경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종교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희봉·이희창, 2005; 이옥숙, 2008; 전성표,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오진아, 2006)와도 같은 결과이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20대 이상의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박기남, 2004; 박희봉·이희창, 2005; 이현진, 2015)와 일치한 결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삶의 만족이 높았다. 그러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최명희, 2012)와는 상반된다.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박기남, 2004; 조계화·김영경, 2008; 김미령, 2012; 윤운도,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직업 활동의 경우,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이옥숙, 2008; 김지현, 2011)한 결과 직업이 있는 경우가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노년기를 대상으로 연구(박기남, 2004)한 결과 남성의 경우는 취업해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선행연구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직업 활동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음은 선행연구(박희봉·이희창, 2005; 황명진, 2010; 강상경, 2012; 최명희, 2012; 이현진, 2015)와 일치한 결과이다. 자녀 수의 경우, 어머니를 대상으로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본 연구의 조부모의 경우 자녀의 수가 2명인 경우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손자녀 수의 경우, 손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보다는 1명인 경우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연구(최명희, 2012)도 있지만, 본 연구결과는 손자녀의 수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김미령, 2014)와 일치한다.

2.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이고, 통제변수는 조부모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총 가구소득, 자녀 수 등 7개 변수, 손자녀 특성으로 손자녀 성별, 손자녀 질병여부 등 2개 변수, 독립변수는 양육효능감과 양육활동 어려움으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우선 각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및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살펴본 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0.1 보다 크며, VIF값은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먼저 모형 1에서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총 가구소득, 자녀 수 등 7개의 조부모 특성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은 24.422($p < .001$)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값은 0.613으로 삶의 만족의 총 분산 가운데 6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총 가구소득, 자녀 수 등 7개의 조부모 특성과 손자녀 성별, 손자녀 질병여부 등 2개의 손자녀 특성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은 19.882($p < .001$)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값은 0.628로 삶의 만족의 총 분산 가운데 6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독립변수인 양육효능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은 47.305($p < .001$)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R^2 값은 0.818로 삶의 만족의 총 분산 가운데 8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로서 양육효능감($\beta = .590$, $p < .001$)이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은 .590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독립변수인 양육활동 어려움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은 45.325($p < .001$)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R^2 값은 0.827로 삶의 만족의 총 분산 가운데 8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로서 양육활동 어려움($\beta = -.55$, $p < .05$)이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활동 어려움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은 .15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활동 어려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6>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	삶의 만족												공선성 통계량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공차 한계	VIF				
	β	t	p	β	t	p	β	t	p	β	t	p						
(상수)		2.58 4	.011		2.45 4	.016		-0.70 6	.482		-0.23 4	.816						
연령		-0.08 0	-0.95 8	.340		-0.05 3	-0.63 3	.528		0.055 3	0.924 3	.357		0.106 1	1.69 1	.094	.426	2.350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0.164 4*	2.24 4*	.027		0.137 1	1.85 1	.067		0.064 8	1.22 8	.222		0.077 5	1.49 5	.138	.626	1.598
조부모 특성	종교(유)		0.021 315	.753		0.018 275	.784		0.021 442	.659		0.024 527	.599		0.788 1268			
	결혼상태(유)		0.032 455	.650		0.036 522	.602		0.030 630	.530		0.047 992	.324		0.728 1373			
	건강상태		0.595 8.53 5***	.000		0.553 7.68 6***	.000		0.280 4.93 5***	.000		0.246 4.27 0***	.000		0.501 1994			
	총 가구소득		0.120 1.69 8	.092		0.115 1.63 5	.105		0.086 1.74 0	.085		0.069 1.42 4	.158		0.698 1432			
	자녀 수		-0.00 -0.03 2	-0.03 3	.974		-0.03 -0.49 4	.623		-0.00 -0.06 3	-0.06 0	.952		-0.01 -0.32 6	-0.32 3	.747	.719	1.390
손자녀 특성	손자녀 성별(여)					0.120 1.76 4	.081		0.103 2.15 0*	.034		0.094 2.01 7*	.046		0.756 1322			
	손자녀의 질병여부(유)					-0.05 -0.89 5	-0.374		-0.06 -1.4 3	-0.148		-0.03 -0.85 7	-0.395		0.874 1144			
	양육효능감								10.4 0.590 90** *	.000		0.522 8.40 6***	.000		0.430 2327			
	양육활동 어려움											-0.1 55	-2.336 *	.02 1	.375	2.667		
	<i>F-value(p)</i>		24.422***(.000)		19.882***(.000)				47.305***(.000)			45.325***(.000)						
	<i>R²(adj. R²)</i>		.613(.588)		.628(.596)				.818(.801)			.827(.809)						

*p<.05, ***p<.001

3.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관계

1)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상관관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 효능감과 양육활동 어려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7>와 같다. 분석결과 양육 효능감은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r=-.66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개인유지($r=-.601$, $p<.001$), 학습 및 여가($r=-.481$, $p<.001$),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r=-.646$, $p<.001$), 이동하기($r=-.592$, $p<.001$), 가사($r=-.339$,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조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활동 어려움의 관계

구분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	가사	전체
양육효능감	-.601***	-.481***	-.646***	-.592***	-.339***	-.636***

*** $p<.00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활동 어려움과 삶의 만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8>와 같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은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r=-.70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개인유지($r=-.612$, $p<.001$), 학습 및 여가($r=-.597$, $p<.001$),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r=-.707$, $p<.001$), 이동하기($r=-.605$, $p<.001$), 가사($r=-.375$,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조부모의 양육활동 어려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

구분	개인유지	학습 및 여가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	이동하기	가사	전체
삶의 만족	-.612***	-.597***	-.707***	-.605***	-.375***	-.700***

*** $p<.001$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육활동 어려움 중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가 양육효능감과 삶의 만족과 관계성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유지가 양육효능감과 삶의 만족과 관계성이 높았으며, 가사와는 가장 낮은 관계성이 나타났다.

2)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관계: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은 회귀분석과 달리 공변량 분석을 통해 변수들간의 직접효과와 이외에도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인과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모형에 내재된 오차를 알 수 있고, 나아가 측정 모형과 이론 모형간의 관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김계수,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으나,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을 구성개념으로 설정하지 않고, 모형에 사용한 모든 변수는 직접 측정이 가능한 변수로 설정하였다.

(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모형의 적합성평가는 공분산 구조모형이 연구가설에 적합한 정도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 : χ^2 , GFI, AGFI, RMSR),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 : NNFI, NFI, Delta 2),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 : PGFI, PNFI, AIC)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는 다른 여러 기준의 적합지수가 이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통계치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Bollen & Long, 1993),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부모 특성(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소득)을 통제한 연구모형 1은 적합도 지수 중 $\chi^2=(50.176)$, p -value=(0.000), GFI(goodness-of-fit index)=(0.916), AGF I(adjusted goodness-of-fit index)=(0.579), NFI(normal-fit index)=(0.913), CFI(comparative fit index)=(0.928), Delta 2 IFI(incremental fit index)=(0.928)로 분석되었고, 손자녀 특성(손자녀 성별, 손자녀 질병여부)을 통제한 연구모형 2는 적합도 지수 중 $\chi^2=(4.085)$, p -value=(0.000), GFI(goodness-of-fit index)=(0.986), AGF I(adjusted goodness-of-fit index)=(0.793), NFI(normal-fit index)=(0.985), CFI(comparative fit index)=(0.988), Delta 2 IFI(incremental fit index)=(0.989)로 분석되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 모두 χ^2 값이 다소 높게 나타나 비록 연구자의 이론적 모형과 실증데이터 간 거리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의미이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통계치이므로 개별 모형에서 크게 의미를 두고 해석하지는 않았다. 또한 AGFI 역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이외의 적합도 지수들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에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다음의 <표 19>은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9>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분	CMIN	p	CMIN/df	GFI	AGFI	NFI	CFI	Delta 2
연구모형1	50.176	.001	5.575	.916	.579	.913	.924	.928
연구모형2	4.085	.043	4.085	.986	.793	.985	.988	.989
적합도 기준	-	-	≤ 3	≥ 0.9	≥ 0.9	≥ 0.9	≥ 0.9	≥ 0.9
판정	-	-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주) 연구모형1 : 조부모 특성(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소득 통제)
 연구모형2 : 손자녀 특성(손자녀 성별, 손자녀 질병여부 통제)

(2) 연구모형의 경로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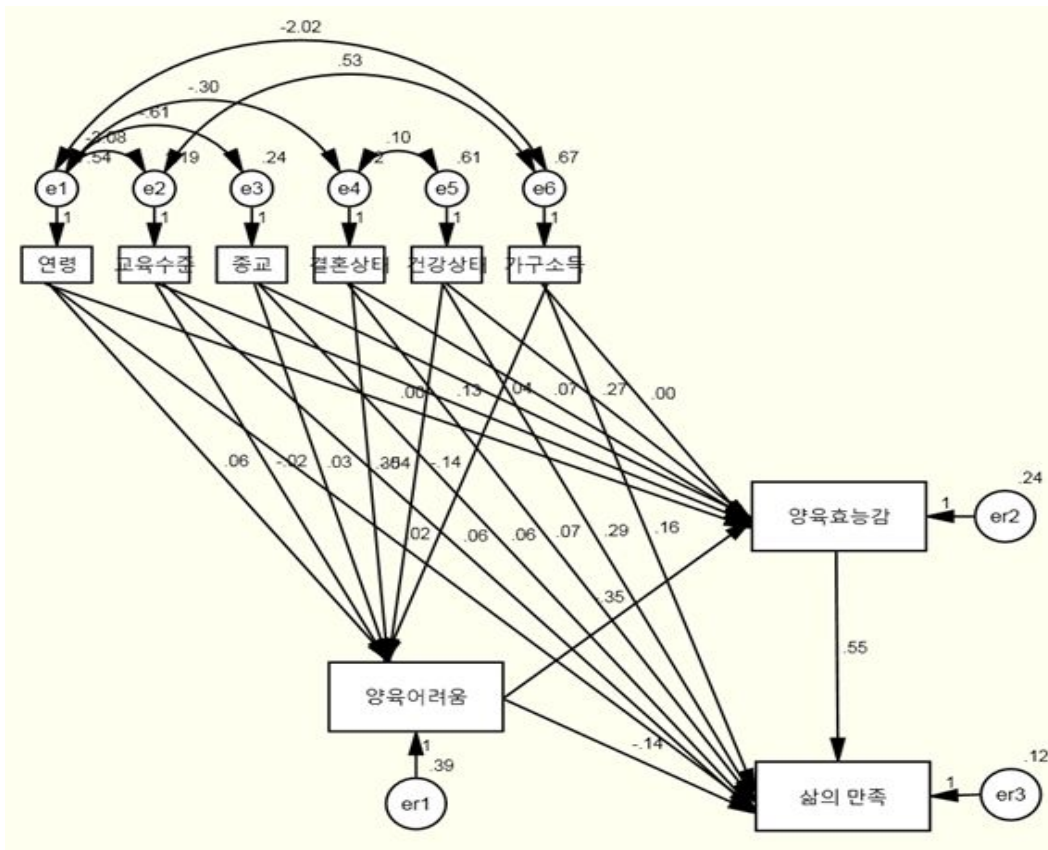
① 연구모형1의 경로추정치

조부모 특성(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소득)을 통제
한 연구모형 1의 경로추정치에 대한 결과는 <표 20>와 같다. 분석결과 양
육활동 어려움($\beta = -.351, p < .001$)은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활동 어려움($\beta = -.144, p < .01$)은
삶의 만족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양육효능감($\beta = .546, p < .01$)은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연구모형1의 경로추정치

경로	Estimate	S.E	C.R.	p	채택 여부
양육활동 어려움 → 양육효능감	-.351	.073	-4.788***	.001	채택
양육활동 어려움 → 삶의 만족	-.144	.055	-2.609**	.009	채택
양육효능감 → 삶의 만족	.546	.064	8.500***	.001	채택

p<.01, *p<.001



<그림 1> 연구모형1의 경로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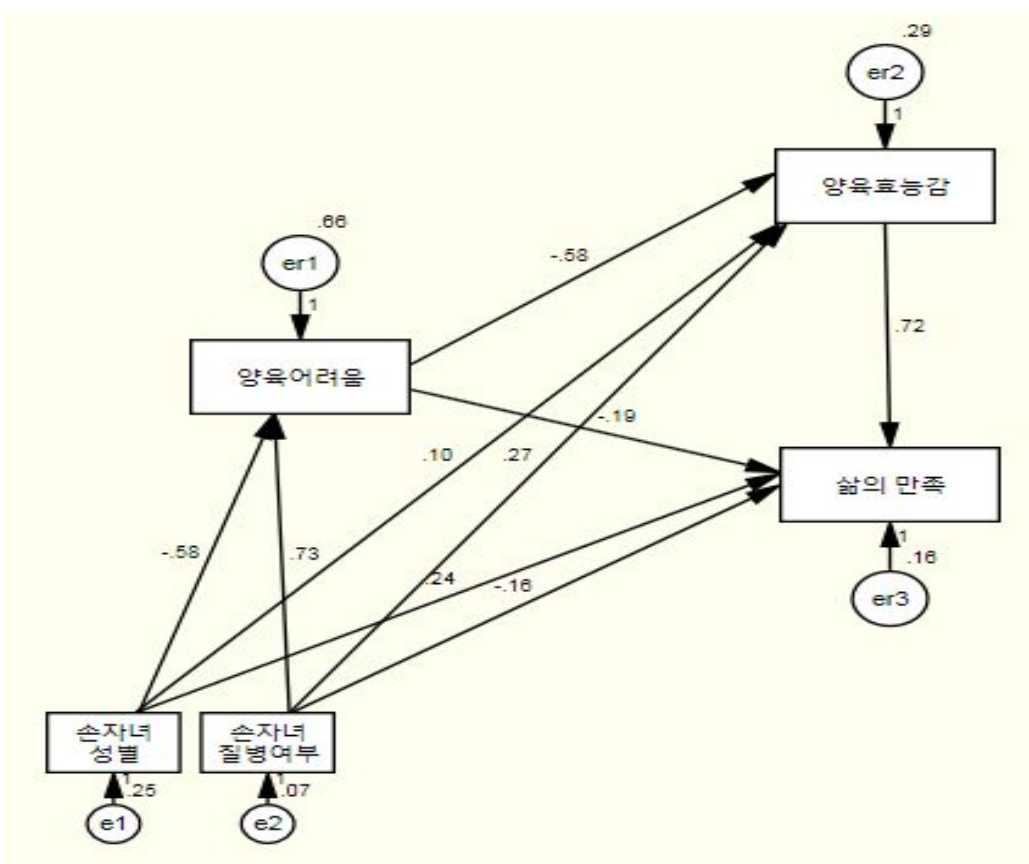
② 연구모형2의 경로추정치

손자녀 특성(손자녀 성별, 손자녀 질병여부)을 통제한 연구모형 2의 경로 추정치에 대한 결과는 <표 21>와 같다. 분석결과 양육활동 어려움($\beta = -.577, p < .001$)은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활동 어려움($\beta = -.192, p < .01$)은 삶의 만족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beta = .722, p < .01$)은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연구모형2의 경로추정치

경로	Estimate	S.E	C.R.	p	채택 여부
양육활동 어려움 → 양육효능감	-.577	.062	-9.256***	.001	채택
양육활동 어려움 → 삶의 만족	-.192	.060	-3.181**	.001	채택
양육효능감 → 삶의 만족	.722	.068	10.542***	.001	채택

p<.01, *p<.001



<그림 2> 연구모형2의 경로추정치

(3)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분석

① 연구모형1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분석

조부모 특성(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소득)을 통제 한 연구모형 1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분석결과 양육활동 어려움은 양육효능감을 거쳐 삶의 만족($\beta = -.192$, $p < .01$)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연구모형1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양육활동 어려움	→ 양육효능감	-.351***	-	-.351***
양육활동 어려움	→ 삶의 만족	-.144**	-.192**	-.336***
양육효능감	→ 삶의 만족	.546***	-	.546***

p<.01, *p<.001

② 연구모형2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분석

손자녀 특성(손자녀 성별, 손자녀 질병여부)을 통제한 연구모형 2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3>와 같다. 분석결과 양육활동 어려움은 양육효능감을 거쳐 삶의 만족($\beta = -.417$, $p < .001$)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연구모형2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양육활동 어려움	→ 양육효능감	-.577***	-	-.577***
양육활동 어려움	→ 삶의 만족	-.192**	-.417***	-.609***
양육효능감	→ 삶의 만족	.722***	-	.722***

p<.01, *p<.001

조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관계의 경로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부모의 양육활동 어려움의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떨어지고,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조부모의 삶의 만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양육활동의 어려움이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을 낮추는 부분도 있고, 양육활동의 어려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떨어져서 삶의 만족이 낮아지는 즉 양육활동 어려움이 양육효능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을 낮추는 부분도 있었다. 양육활동의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보다 양육효능감을 통해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의 크기가 더 컸다.

V. 결론

1. 결론

본 연구는 현재 맞벌이 부부를 대신하여 만 0~6세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총 134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조부모 특성, 손자녀 특성,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차이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효능감은 그들의 삶의 만족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조부모의 건강상태(박기남, 2004; 조계화 · 김영경, 2008; 강상경, 2012; 김미령, 2012), 교육수준(강상경, 2012; 이현진, 2015), 가구소득(박희봉·이희창, 2005; 황명진, 2010; 강상경, 2012, 이현진, 2015)등이 밝혀져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요인들보다 양육효능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와 조모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문정, 2009; 김지현, 2012)와 지지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와 조모 뿐 아니라 조부모에게도 양육효능감은 삶의 만족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밝혀졌다. 부수적으로 양육효능감보다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양육하는 손자녀 특성도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었다. 손자녀 특성 중 손자녀의 성별과 손자녀의 질병여부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손자녀 양육활동 어려움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며, 양육효능감은 조부모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조부모의 양육활동 어려움의 정도가 높

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떨어지고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조부모의 삶의 만족이 높았다. 또한 양육활동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양육활동 어려움이 양육효능감을 통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 구체적으로 양육활동 어려움 중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가 양육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가장 관계성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유지였으며, 가사와는 가장 낮은 관계성을 보였다.

셋째, 손자녀 양육에 있어 조부모 특성, 손자녀 특성, 양육환경 특성에 따라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조부모의 건강상태와 양육효능감을 보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를 연구(오진아, 2007; 권영희, 2010; 이미원, 2015)한 결과와 동일하게 건강상태가 좋은 조부모가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양육효능감은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부모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신체적 건강상태가 중요하다. 양육동기와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면, 조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오진아, 2007; 김문정, 2009; 권영희, 2010)에서 손자녀 양육동기와 양육효능감에 큰 차이가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들의 양육동기의 다중응답 문항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문항이 ‘손주를 돌보는 보람과 애정 때문에’였다. 즉,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손자녀를 돌보게 된 경우보다는 조부모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조부모의 연령과 삶의 만족을 살펴보면, 60대 이상보다 50대가 삶의 만족이 더 높은 결과는 전해정 외(2013)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전해정 외(2013)는 60대 미만을 중년기 조부모, 60대 이상을 노년기 조부모로 나눠 살펴보았는데 손자녀 양육자로서의 전이의 긍정적 효과는 중년기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에서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는 손자녀 양육이 60대 이상의 조부모 보다는 50대의 조

부모에게 보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경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육활동의 어려움을 하위요인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로, 60대 이상은 가사를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어려움을 더욱 호소하고 있었다. 이런 양육활동의 어려움이 양육효능감을 낮아지게 했으며, 낮은 양육효능감이 삶의 만족까지 낮춘 결과라 볼 수 있다. 조부모의 특성 중 종교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 전반적인 양육활동 어려움과 학습 및 여가에 대한 어려움을 높게 느꼈으며, 양육효능감, 삶의 만족도 낮았다. 오진아(2006)는 사회로부터의 소외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로 종교 활동이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즉, 굳이 종교활동이 아니더라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부분적으로라도 사회적 활동이 필요함이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조부모의 교육 수행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수행하고, 일부 지역은 보건소와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5). 각 기관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손자녀 건강관리, 양육기술 및 정보, 안전교육, 스트레스 관리 및 갈등해결 전략, 놀이방법 등에 관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개인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정놀이 및 동행하기’와 관련한 양육활동의 어려움이 조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큰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자녀와 가정에 있는 교구나 놀잇감 등을 이용하여 함께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함께 쇼핑이나 마트 등을 가기 등처럼 손자녀와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해야하는 활동들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활동이나 놀이의 확장을 흥미롭게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법이나 동화구연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

다. 양육효능감에 관한 프로그램도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론 중심의 수업으로 이뤄져 있을 뿐 아니라 일시적이며 단시간 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양육효능감 다음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 조부모의 건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집안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손자녀 양육시 관절이나 허리 등에 무리가 적게 가는 동작을 배울 수 교육, 신체적으로 무리를 주는 잘못된 자세의 교정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이나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조부모들에게 비타민이나 영양제 제공 등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수당지급 확대의 고려와 집으로 찾아가는 교육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손자녀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현재 3곳으로 광주광역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강남구이다. 그 중 서울시 서초구는 조모 또는 외조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돌봄에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분분하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자녀가 돌봄에 대한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금액이 100만원 미만은 양육효능감과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100만원 이상은 효능감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손자녀 양육에 대한 돌봄의 경제적 지원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녀양육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자녀가 주는 지원과 사회에서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알고 이를 지원해주는 것과는 받는 입장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대상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도 손자녀 양육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에게 수당지급을 꼽았다. 부정수급이나 가정양육 수당과의 중복수급 같은 문제가 있지만, 손자녀 양육 가정의 세부적인 조사(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시간)와 기준을 세워 적용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요구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으로 찾아가는 교육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손

자녀를 양육하다보면 많은 활동들로 인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게 된다. 특히 신체적으로 취약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데리고 이동을 하여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연구결과 조부모는 대체로 높은 교육의 필요성과 참여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요구를 채울 수 있도록 교육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양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2.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수집이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에서만 이루어졌고, 조사 대상자의 선정이 비확률 표집방법으로 이뤄졌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횡단연구가 아닌 종단연구로 어떤 변수의 변화로 인해 양육효능감과 양육활동의 어려움, 삶의 만족에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 특성, 손자녀 특성, 양육환경 특성을 살펴 손자녀 양육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선정과 자료수집 과정의 제한점으로, 조부모의 자녀의 특성(손자녀의 부모 특성)을 함께 살펴볼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의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손자녀 양육과 관련이 있는 조부모의 자녀의 특성도 포함시켜 연구해 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상경(2012).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베이비붐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 한국복지연구, 43(4), 91-119.
- 권영희(2010).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윤·정미라·박수경·이방실(2013). 만2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7, 179-201.
- 김문정(2009). 손자녀 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령(2014). 손자녀 돌봄노동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6(1), 178-204.
- 김미영(2015).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적 인간 고찰. 사회복지경영연구, 2(2), 27-42.
- 김수정(2015).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지지와 직무 만족과의 관계에서 일-가족 향상의 매개효과: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12). 손자녀 양육 조모의 양육보상감 및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32(3), 851-867.
- 김지현(201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5), 49-57.
- 김지현(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현숙·정영숙(1997). 아동기 아버지의 생활만족수준과 역할수행도. 한국영유아보육학, 10, 281-306.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차이. 한국노년학회, 24(3), 13-29.
- 박미려(2015). 시간적 차원에서 본 베이비붐 세대의 행복수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소영(200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기 효능감 및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희·노상경·권경숙(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379-410.
- 서희(2012).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수준 및 양육효능감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은호·최혜순(201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211-230.
- 오진아(2006).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12(3), 368-376.
- 오진아(2007).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1), 25-35.
- 오창순·신선인·장수미·김수정(201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 이미원(2015). 손자녀 양육조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와의 친밀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례·한세영(2007). 취업모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1(1), 19-35.
- 이영숙·박화운(2000). 유아기 손자녀가 기대하는 조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유아교육연구, 20(3), 211-232.
- 이인정·최해경().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
- 이재림(2010). 손자녀 양육지원과 관련된 조모와 취업모의 경험. 한국연구재단 결과보고서, 1-16.
- 이현진(2015).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변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숙·조효진·조윤진(2014).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대한 종단모형연구.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3(1), 181-207.
- 전성표(2011). 종교와 삶의 만족도. 종교와 사회, 3(1), 368-376.
- 전연우·김윤숙·조희숙(2012). 손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외할머니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175-199.
- 전향미(200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정·조규영·박민경·한세황(2013). 손자녀 양육자로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3(3), 515-536.
- 조영숙·이양희(200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4), 97-112.
- 조윤주(2012).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의 생성감과 가족 지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2), 267-294.
- 최명희(2012).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숙·박영희(2015).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정서조절행동과 양육효능감.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9(2), 228-248.
- 황윤하(2015).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 및 양육 효능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혜경·김민정(201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2(1), 95-110.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nka, L. E. Storerzang, H. D. & Jackson, K.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Fischer, C. S. (1983). Transition to grandmother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6, 67-78.
- Goodfellow, J., & Laverty, J. (2003). Grandparents supporting working families. *Family Matters*, 66, 14-19.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Luster, T.,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 Care*, 29(3), 301-311.
- Mannell, R., & Dupuis, S. (1996). Life Satisfaction. In J. E. Birren(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2, New York:

Academic Press, 59-64.

- Medley, M.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 sixty-five years of age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55.
- Neugarten, B. L., & Weinstein, K. K. (1964). The changing american grandpar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6, 199-204.
- Roberto, K. A., & Stroes, J. (1992). Grandchildren and grandparents: Roles, influences, and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4, 227-239.
- Robertson, J. F. (1977). Grandmotherhood: A study of role conce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1), 165-174.
- Rogers, S. J., & Deboer, D. D. (2001). Changes in wives' income: Effects on marital happin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risk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458-472.
- Schel, M. J., & Rieckman, T. (1998). An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26, 15.
- Teti, P. H., & Gelfand. (1991). Parental attitudes. *Journal Genetic Psychology*, 144, 105-113.

ABSTRACT

The Effect of Grandchildren-Rearing and Parenting Efficacy on Life Satisfaction

Jeon, Eun m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is a research on the life satisfaction of grandparents who are currently bringing up their grandchildren from 0 to 6 years old for DEWKs (Dual Employed With Kids). To discern their life satisfaction, we conducted a survey around the districts of Seoul, Gyeonggi-do, and Jeolla-do, collecting 134 questionnaires. Through statistical analytic method with the collected data, we grasped the characteristics of grandparents, the characteristics of grandchildren, parenting efficacy according to each parenting environment, the difficulty of parenting activities, the degree of the differences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influences among several variables which ha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of grandpar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ing efficacy of grandparents who are presently rearing their grandchildren have had a profound impa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Precedent studies have revealed physical condition of grandparents, education level, and household income as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of seniors. Bu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parenting efficacy has far mor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than those factors above mentioned. It is revealed in this study that parenting efficacy is very important variable in life satisfaction, not only for mothers and grandmothers but also for grandparents.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grandchildren being taken care of also have had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of their grandparents, although not more than parenting efficacy. Out of the characteristics of grandchildren, such variables as sex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disease are shown to have had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Secondly, the difficulty of parenting activities for grandchildren have influenced parenting efficacy, and then parenting efficacy have an impact on life satisfaction of grandparents. The more difficult the parenting activities of grandparents were, the lower the parenting efficacy was, and the higher the parenting efficacy was,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of grandparents was. Also, the indirect effect of the difficulty of parenting activities through parenting efficacy on life satisfaction was greater than the direct effect of the difficulty of parenting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More concretely, out of difficult parenting activities, 'playing with grandchildren at home, and accompanying them' had the highest relationship with parenting 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Next to that['playing with grandchildren at home, and accompanying them']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with parenting 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was 'maintaining personal life', and 'doing housework' showed the lowest relationship.

Thirdly, parenting efficacy, the difficulty of parenting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showed differences across the characteristics of grandparents, the characteristics of grandchildren, and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ing environment. The results of examining

parenting efficacy across those characteristics aforementioned showed higher parenting efficacy for grandparents in their 50s, with higher education level, having a religion, having their spouses, healthier, with total household income over 3 million Korean Won/month, and having 2 children.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grandchildren, the parenting efficacy in case of female grandchildren with no disease was higher.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ing environment, the parenting efficacy was higher in case of receiving regular economic support for looking after grandchildren over 1 million Korean Won/month.

The results of looking into difficulties of parenting activities across the characteristics showed more difficulty of parenting activities for grandparents over sixty, with lower education level, with no religion, with no spouse, unhealthier, with less total household income, having more than 4-5 children, and having more grandchildren.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grandchildren, the difficulty of parenting activities was higher for grandchildren who were male and ill, and attended kindergarten or day care center.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ing environment, the difficulty of parenting activities was higher in case of receiving regular economic support for looking after grandchildren less than 1 million Korean Won/month.

The results of investigating life satisfaction across the characteristics of grandparents showed higher life satisfaction for grandparents in their 50s, with higher education level, having a religion, having their spouses, healthier, with total household income over 3 million Korean Won/month, and having 2 children.

<부 록>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맞벌이부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조부모님을 대상으로 손자녀 양육과 삶의 만족에 관해 연구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귀하의 협조는 손자녀를 양육하시는 조부모님들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실천적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조부모님들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에만 활용이 되며,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하여 엄격히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 03.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 은 미
지도교수 고 선 강

E-mail: seilerem@naver.com

1. 현재 자녀(손자녀의 부모)가 맞벌이 중이신가요?	예	● 두 문항에 모두 '예'하신 분만 설문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2. 현재 0~6세(취학전) 영유아를 정해진 기간(시간)에 정기적으로 돌보고 계신가요?	예	

다음의 내용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본인)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거나 ()에 적어 주십시오.

1.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은 어디이십니까? ()시/도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년생
4. 귀하의 교육수준(최종학력)은 어떠하십니까?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전문대학 이상
5. 귀하는 종교가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배우자있음 ⇒ 6-1번으로 가시오
 - ② 배우자없음(사별, 이혼, 별거, 기타 등) ⇒ 7번으로 가시오

6-1. 귀하의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건강이 매우 안좋다.
 - ② 건강이 나쁜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건강이 좋은 편이다.
 - ⑤ 건강이 매우 좋다.
7.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건강이 매우 안좋다.
 - ② 건강이 나쁜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건강이 좋은 편이다.
- ⑤ 건강이 매우 좋다.

8. 귀하의 주거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자녀의 소유
- ⑤ 기타 _____

9. 현재 직업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

9-1. 귀하의 현재 월 평균 근로소득(예: 급여 등)은 얼마이십니까?
* 양육수고비는 제외
()만원

10. 귀하(부부)의 총 가구소득(예: 기초생활수급비, 노령연금·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각종 연금, 임대·사업·근로소득, 자녀들이 주는 용돈 등 포함)은 월 얼마이십니까?
()만원/월

11. 귀하는 현재나 은퇴 전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초중고교육 등 교육관련 직업에 종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귀하의 자녀의 수는 몇 명입니까? ()명

13. 귀하의 자녀의 성장 시 양육에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대체로 참여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참여하였다	많이 참여하였다

14. 현재 양육하고 계시는 손자녀의 수는 몇 명입니까? ()명

다음의 내용은 삶의 만족에 관한 것입니다.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 표를 해주십시오.(각 문항 당 한 곳에 표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것 같다.					
2	내 인생을 회고해 보면 정말 행복하다.					
3	가능한 일이라면 내 과거를 바꿨으면 좋겠다.					
4	요즘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들이다.					
5	대부분의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다.					
6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항상 흥미를 느낀다.					
7	미래에 대해 무언가 기쁘고 흥미있는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한다.					
8	지치고 늙었다고 생각된다.					
9	남은 인생에 많은 것을 기대한다.					
10	지금도 바쁘고 가치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11	요즘 들어서 사소한 일에도 괴로움을 느낀다.					
12	조금만 일에도 쉽게 화가 난다.					

다음의 내용은 양육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를 해주십시오.(각 문항 당 한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손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손자녀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3	나는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좋은 할머니(할아버지)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5	나는 손자녀가 나를 좋은 할머니(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6	나는 할머니(할아버지)로서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7	나는 손자녀가 잘못했을 때, 손자녀 자신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가르친다.					
8	나는 할머니(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9	나는 좋은 할머니(할아버지)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귀하가 손자녀를 돌보실 때 예상되는 어려움의 항목들에 관한 것입니다.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 표를 해주십시오.(하시지 않는 문항이면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해 주시고, 하고 계시는 문항이면 그 어려움의 정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항목	해당 사항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손자녀를 잠재우는 일과 잠에서 깨어난 후의 지도가 힘들다.						
2. 나는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는 일이 힘들다.						
3. 나는 손자녀를 목욕시키는 일이 힘들다.						
4. 나는 손자녀의 배변훈련이나 대소변 후 신변처리를 돕는 일이 힘들다.						
5. 나는 손자녀의 외모관리(옷 입히기, 머리 빗기기 등)를 돕는 일이 힘들다.						
6. 나는 손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등원을 위해 준비물이나 도시락 챙기는 일이 힘들다.						
7. 나는 유치원(어린이집)에 관련된 과제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힘들다.						
8. 나는 학원 및 특기적성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힘들다.						
9. 나는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의 숙제지도를 하는 일이 힘들다.						
10. 나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학습을 지원하는 일이 힘들다.						
11. 나는 손자녀의 친구사귀기, 또래관계 등의 사회성발달을 지원하는 일이 힘들다.						

항목	해당 사항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나는 손자녀의 TV 시청시간, TV 프로그램 선정하고 관리하는 일이 힘들다.						
13. 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놀이지도가 힘들다.						
14. 나는 영화관람, 문화행사 등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여가 힘들다.						
15. 나는 롤러브레이드, 자전거타기, 놀이터에서 놀기 등 바깥놀이를 지원하는 일이 힘들다.						
16. 나는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교구, 놀잇감 등을 이용하여 함께 놀아주는 일이 힘들다.						
17. 나는 손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 힘들다.						
18. 나는 손자녀와 쇼핑, 마트가기, 서점 가기 등을 함께하는 일이 힘들다.						
19. 나는 손자녀를 데리고 식사 및 간식, 개인 관리, 건강관리를 위해 이동하는 일이 힘들다.						
20. 나는 손자녀를 데리고 학습지도를 위해 이동하는 일이 힘들다.						
21. 나는 손자녀를 데리고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일이 힘들다.						
22. 나는 손자녀를 데리고 다니기 위해 중간 중간 기다려서 이동하는 것이 힘들다.						
23. 나는 집안 청소하는 일이 힘들다.						
24. 나는 빨래하는 일이 힘들다.						
25. 나는 성인(자녀) 식사 준비하는 일이 힘들다.						
26. 나는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힘들다.						

다음의 내용은 귀하의 손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육하고 계시는 손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현재 양육 중인 손자녀 중 가장 오래 돌본 손자녀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본인)의 손자녀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거나 ()에 적어 주십시오.

15. 현재 양육하고 계시는 손자녀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 양육하고 계시는 손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현재 양육 중인 손자녀 중 가장 오래 돌본 손자녀 기준 / 쌍둥이일 경우, 임의적으로 한 명 선택

- ① 남 ② 여

16. 현재 양육하고 계시는 손자녀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세

17. 현재 양육하고 계시는 손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친할머니
② 외할머니
③ 친할아버지
④ 외할아버지
⑤ 기타 _____

18. 귀하의 손자녀는 장애, 알레르기 질환(예: 천식, 아토피), 만성적 질병 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9. 현재 양육하고 계시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의 내용은 손자녀 양육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거나 ()에 적어 주십시오.

20. 귀하가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한 가지 이상 체크 가능)

- ① 부모로서의 도리와 의무감에서
② 손주를 돌보는 보람과 애정 때문에

- ③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므로
- ④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 ⑤ 내 혈육을 남에게 맡기기 싫어서
- ⑥ 기타 _____

21. 현재 귀하는 손자녀를 돌봄으로 인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양육수고비)을 받고 계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 (월 평균 _____만원)
- ② 비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 ③ 받지 않음

22. 귀하와 손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 ① 혼자 돌봄
- ② 배우자와 함께 돌봄
- ③ 손자녀의 친척(예: 이모나 고모 등)과 함께 돌봄
- ④ 베이비시터 등과 함께 돌봄
- ⑤ 기타 _____

23. 손자녀를 양육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양육하고 계시는 손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현재 양육 중인 손자녀 중 가장 오래 돌본 손자녀 기준

()년 ()개월

24. 현재 양육하고 계시는 손자녀를 일주일에 몇 일 양육하고 계십니까?

()일/일주일

25. 귀하는 손자녀를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양육하고 계십니까?

()시간/하루

26. 귀하의 주된 양육장소는 어디이십니까?

- ① 손자녀 및 그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돌봄
- ② 손자녀와만 함께 살면서 나의 집에서 돌봄
- ③ 손자녀와만 함께 살면서 손자녀 집으로 가서 돌봄
- ④ 손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나의 집에서 돌봄
- ⑤ 손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손자녀 집으로 가서 돌봄

⑥ 기타 _____

다음의 내용은 손자녀 양육 지원 교육 및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거나 ()에 적어 주십시오.

최근 정부 기관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을 위해 영유아의 안전·건강관리, 노래·유희, 베이비마사지, 기본생활습관과 지도, 그림책놀이, 미술놀이 등 손자녀를 잘 돌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중입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7	위와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8	위와 같은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29. 현재 광주광역시, 서울시 서초구·강남구 등의 지자체에서는 손자녀 돌봄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조부모-손자녀 돌봄수당을 받고 계십니까?

- ① 현재 받고 있음
- ② 전에는 받았지만 현재는 받고 있지 않음
- ③ 받은적이 없음
- ④ 잘 모르겠음

30. 귀하가 손자녀 양육함에 있어, 다음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 2가지를 골라 순위를 정해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육아 공간 제공
- ②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모임 지원(자조모임)

- ③ 집으로 찾아오는 손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 ④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 ⑤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에게 수당 지급
- ⑥ 손자녀 돌봄 교육프로그램 제공
- ⑦ 기타 (자세히:)

★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